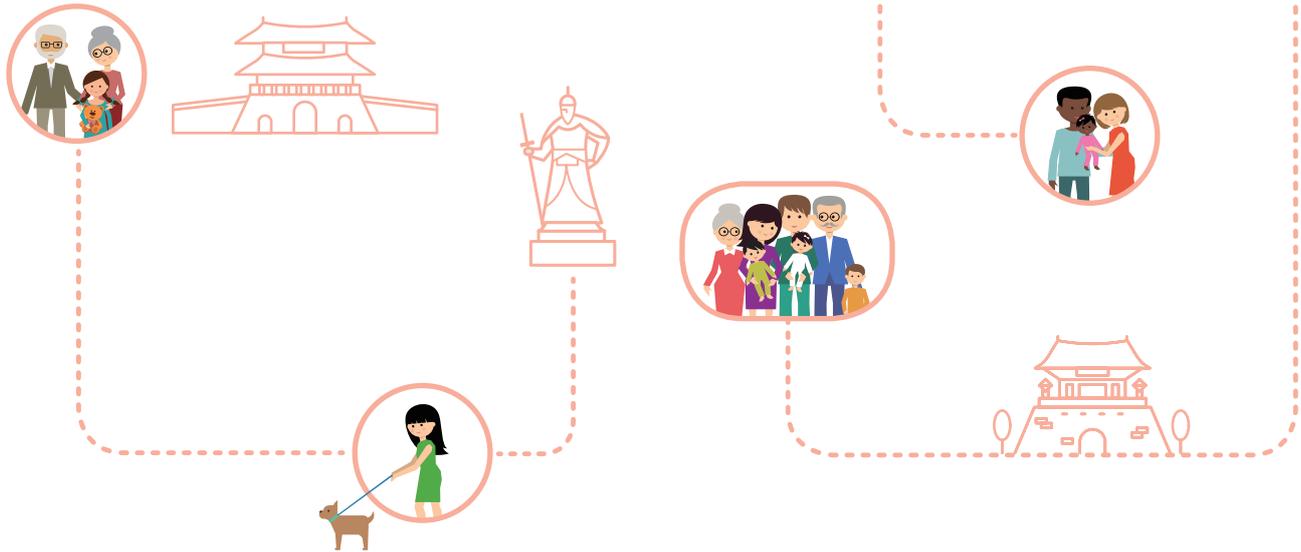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51-6110000-001246-10

2018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



2018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





센터장 발간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압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족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 저출산 및 청소년 인구의 감소, 맞벌이 가족의 증가, 만혼화 및 비혼화, 이혼가족·재혼가족·한부모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화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문화가족, 탈북민가족 등이 등장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족환경 역시, 약 30%를 육박하는 1인 가구의 증가, 전국에서 가임기 여성의 거주비율은 높은 반면 합계출산율 최저를 기록하는 등 서울지역만의 가족지형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와 더불어 각 가족의 건강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시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가족구성원의 가족위기 예방 및 건강성 유지를 위해 가족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시 광역센터로서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을 목표로 현장에서 수렴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수행하며 정부 가족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의 지형변화 및 가족지원서비스의 다양성을 서울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을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8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 가족의 현재를 스냅샷(snapshot)으로 집중 조명해보고, 서울시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서울시 가족의 현재, 마을이 함께 돌보는 서울, 가족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서울, 가족관계가 행복한 서울, 모든 가족이 적절한 생활을 누리는 서울'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족보고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서울시 가족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진단해보고, 서울시민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가족정책과 가족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삶을 담아내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노력이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을 통해 전달되어 유익한 시민소통 보고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보고서 발간을 위해 고심해주신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연구팀(책임연구자 진미정 교수)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가족원의 권리와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서울시 가족지원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목차

I. 서울시 가족의 현재 7

- 1. 서울시 가족 스냅샷 8
- 2.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14
- 3. 서울시민의 가족관계 19
- 4.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21

II. 마을이 함께 돌보는 서울 23

- 1. 믿고 안심하는 영유아 돌봄 25
- 2. 빈틈없이 촘촘한 초등 돌봄 35
- 3. 가족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돌봄 41

III. 가족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서울 45

- 1. 가족친화적인 일터 47
- 2. 다시 시작하는 엄마의 일 53
- 3. 아빠의 일상적 돌봄 참여 57
- 4. 문화와 심이 있는 가족의 삶 61

IV. 가족관계가 행복한 서울 65

- 1. 공감과 소통의 가족관계 67
- 2.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가족 73
- 3. 가족 위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 82

V. 모든 가족이 적절한 생활을 누리는 서울 87

- 1. 가족의 안정된 주거생활 89
- 2. 가족의 기본적인 경제생활 94

[부록]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97

2018
희망서울 행복가족

I 서울시 가족의 현재

1. 서울시 가족 스냅샷
2.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3. 서울시민의 가족관계
4.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1 서울시 가족 스냅샷



▶ 서울시에 총 9,741,871명이 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서울시에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9,741,871명이 살고 있으며, 이는 2016년 12월 기준 9,805,506명에서 약간 감소한 것이다(해당연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 서울시에 여자 4,984,229명과 남자 4,757,642명이 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서울시의 여성인구는 2016년 12월 기준 5,006,391명에서 약간 감소하여 2017년 12월 기준 4,984,229명이며, 남성인구도 2016년 4,799,115명에서 약간 감소하여 2017년 4,757,642명이다(해당연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년 처음으로 서울시가 전국에서 여성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된 이후 2017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 비율이 51%를 넘는다.

▶ 서울시에 40대 인구가 1,604,021명(16.5%)으로 가장 많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는 40대가 1,604,021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한다(2017년 12월 기준). 다음으로 30대 1,572,820명(16.1%), 50대 1,546,473명(15.9%), 20대 1,477,163명(15.2%), 60대 1,104,377명(11.3%) 순이다(해당연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1980년부터 2005년까지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15년 조사부터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연령대별, 연도별 인구 비율
(단위: %)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 서울시에는 3,813,26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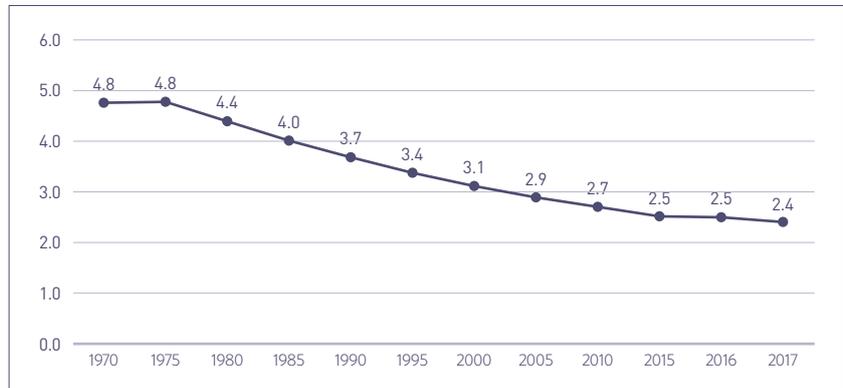
서울시의 총 가구수는 2016년 3,784,705가구였는데, 2017년 3,813,260가구로 0.75%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서울의 인구수가 다소 감소한 데 비해, 가구규모의 축소에 따라 가구수는 2010년에는 3,504,297가구, 2016년에는 3,784,705가구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해당연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 서울시에는 가구당 평균 2.4명이 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2005년에 3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0년 2.7명, 2016년 2.5명, 2017년 2.4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해당연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변화
(단위: 명)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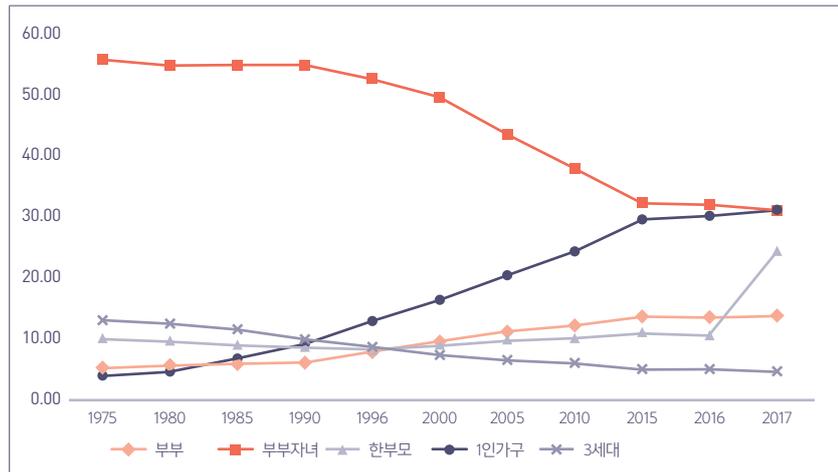


▶ 서울시 가구 중에는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31.1%), 1인가구(31.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2017년 12월 기준)

서울시 가구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2017년 기준 1,184,517가구(31.1%), 1인가구가 1,180,540가구(31.0%)로 가장 많다. 1인가구는 1990년까지는 10% 미만이었으나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부터 30%가 넘었다(해당연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2017년 기준 523,073가구(13.7%)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의 가구형태별 가구수 변화
(단위: %)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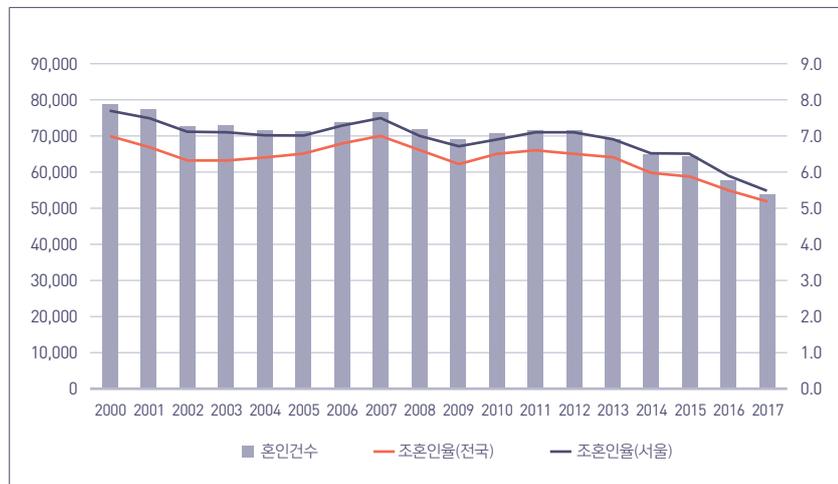


▶ 서울시에서는 2017년 한 해 53,776쌍이 결혼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서울시의 혼인건수는 1995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53,776건을 기록하였다(해당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서울시의 조혼인율(인구 천명당 해당연도 혼인건수)은 2016년 5.9건에서 2017년 5.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의 혼인건수와 전국 및 서울시의 조혼인율 변화
(단위: %)

출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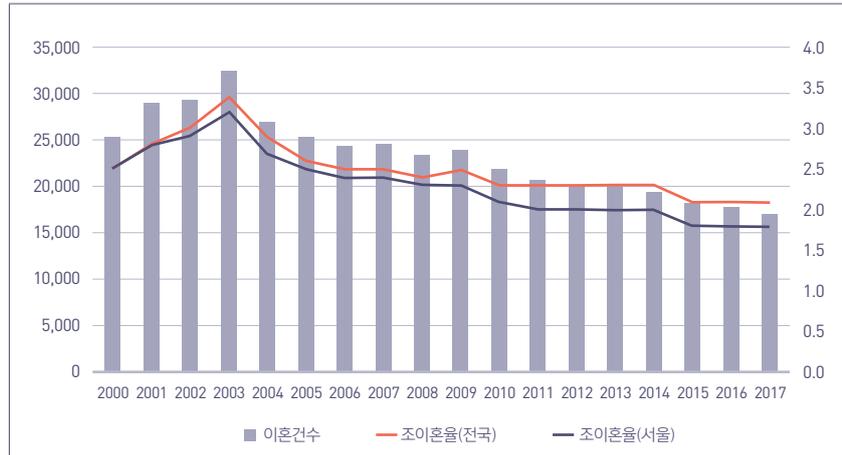


▶ 서울시에서는 2017년 한 해 17,083쌍이 이혼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서울시의 이혼건수는 2017년 기준 17,083건으로 2016년 17,777건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해당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서울시의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해당연도 이혼건수)은 2017년 1.8건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의 이혼건수와 전국 및 서울시의 조이혼율 변화

출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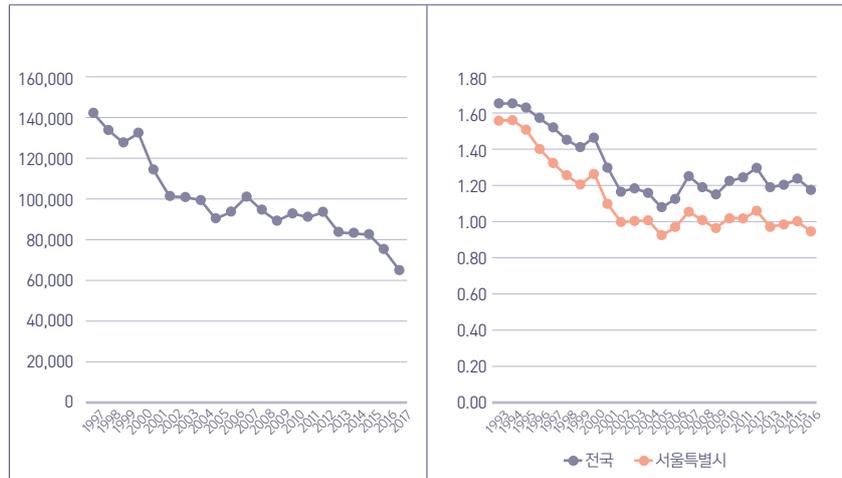


▶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836입니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출생아수는 2000년까지 13만명 전후였는데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6년에 처음으로 8만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65,389명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였으며 그 이후 2015년까지는 1.0명 전후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부터 다시 하락하여 2017년에는 0.836명을 기록하였다. 2010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되었다.

서울시의 출생아수 (단위: 명)

출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합계출산율 변화 (단위: 명)

출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서울시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4,437건이며, 다문화가족 66,61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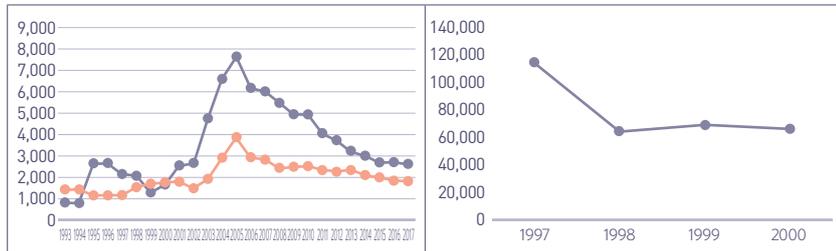
서울시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4,437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고, 이는 2016년의 4,564건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해당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7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는 2,625건이고,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중국, 세 번째는 태국이다.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결혼은 1,812건이며,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 미국, 베트남의 순으로 많다. 서울시에 2017년 다문화가족 66,618가구가 살고 있으며, 2016년 69,054가구에 비해 감소하였다(해당연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서울시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출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다문화 가구수 변화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세계 대도시와의 인구·가구 통계 비교

세계 여러 도시와 비교해봤을 때 서울의 인구·가구통계는 어떤 수준일까? 먼저 서울과 인구 규모가 가장 비슷한 도시는 뉴욕이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인구가 9.8백만이고 뉴욕은 8.6백만으로 서울이 약 1.2백만 명이 더 많다.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는 13.5백만이 살고 있는 도쿄이다. 인구밀도는 서울이 비교 대상 국가인 도쿄, 홍콩, 싱가포르, 뉴욕, 베를린 중에서도 가장 높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약 1.5배, 도쿄의 약 2.7배 수준이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라 할 수 있다.

연령별 인구는 도시마다 기준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유소년/미성년 인구(만 14세 미만, 싱가포르는 20세, 베를린은 18세 미만),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싱가포르는 21~64세, 베를린은 19~64세), 노년 인구(65세 이상)로 구분해 볼 때, 서울은 유소년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이다.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두 가지인데, 먼저 합계출산율은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며,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에 대한 연간 출생아 수를 말한다. 서울은 비교 대상 도시 중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베를린 1.5명이다. 고령화의 동향은 고령화율(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도쿄의 고령화율이 20.4%로 가장 높으며, 서울은 13.4%로 13%인 뉴욕과 가장 비슷하다.

가족의 유형이나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인 가구 수와 가구원 수를 보면, 가구 수는 도쿄(6.9백만 가구)에 이어 서울(3.8백만 가구)이 두 번째로 많다. 한 가구에 몇 명이 사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가구원 수는 싱가포르(3.35명)가 가장 많고, 베를린(1.74명)이 가장 적다. 서울은 2.4명으로 홍콩, 뉴욕보다는 적고 도쿄와 베를린보다는 많다.

	인구규모 ¹⁾	인구밀도	연령별 인구	합계출산율	고령화율	가구수	평균 가구원수
서울	9.8백만 (2017)	16,364 per/km ² (2015)	0-14: 11.2% 15-64: 75.4% 65+: 13.4% (2017)	0.84 조출생률 6.7 (2017)	13.4% (2015)	3.8백만 (2017)	2.4 (2017)
도쿄 ²⁾	13.5백만 (2015)	6,158 per/km ² (2015)	0 - 14: 11.4% 15 - 64: 68.2% 65+: 20.4% (2010)	1.13 (2013)	20.4% (2010)	6.9백만 (2015)	1.94 (2015)
홍콩 ³⁾	7.4백만 (2017)	6,690 per/km ² (2014)	0 - 14: 11.5% 15 - 64: 71.6% 65+: 16.9% (2017)	1.13 (2017)	16.9% (2017)	2.5백만 (2017)	2.8 (2017)
싱가포르 ⁴⁾	3.9백만 (2017)	7,797 per/km ² (2017)	0 - 19: 20.9% 20 - 64: 66.1% 65+: 13.0% (2017)	1.20 (2017)	9.21% (2017)	1.3백만 (2017)	3.35 (2017)
뉴욕 ⁵⁾	8.6백만 (2017)	10,972.2 per/km ² (2017)	0 - 14: 17.8% 15 - 64: 68.7% 65+: 13.6% (2017)	조출생률 13.6 (2015)	13.0% (2017)	3.1백만 (2017)	2.65 (2017)
베를린 ⁶⁾	3.5백만 (2015)	3,923 per/km ² (2015)	0 - 17: 15.6% 18 - 64: 65.2% 65+: 19.2% (2015)	1.5 (2015)	19.2% (2015)	1.9백만 (2015)	1.74 (2015)

세계도시의 인구·가구 통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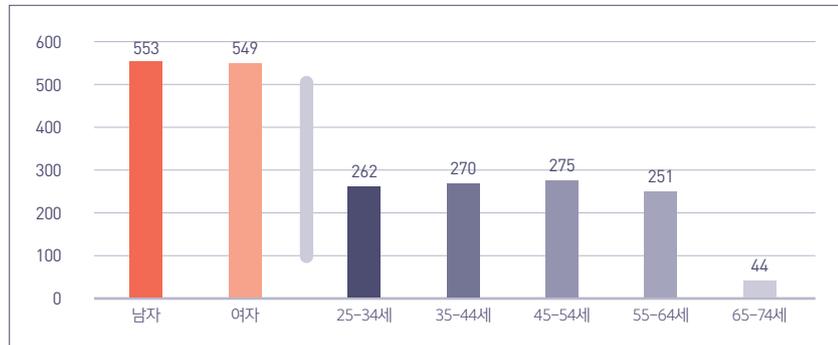
- 1) 각 도시의 인구·가구 통계는 수집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출처는 아래 링크와 같다. 서울과 싱가포르의 인구 규모는 해당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를 포함하지 않은 규모이며 도쿄, 홍콩, 뉴욕, 베를린은 외국인 수까지 포함한 규모이다.
- 2) 2015/2010: <http://www.metro.tokyo.jp/ENGLISH/ABOUT/HISTORY/history03.htm>
2013: <https://knoema.com/atlas/Japan/Tokyo/Total-fertility-rate>
- 3) 2017: <https://www.censtatd.gov.hk/hkstat/sub/sp150.jsp?tableID=002&ID=0&productType=8>
2014: <https://www.gov.hk/en/about/about/hk/factsheets/docs/population.pdf>
- 4) 2017: <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publications/population/population2017.pdf>
<https://www.singstat.gov.sg/find-data/search-by-theme/population/elderly-youth-and-gender-profile/latest-data>
- 5) 2015: https://www.health.ny.gov/statistics/chac/birth/b42_58.htm
2017: <https://www.census.gov/quickfacts/fact/table/newyorkcitynewyork/PST045217#viewtop>
- 6) 2015 https://www.statistik-berlin-brandenburg.de/produkte/kleinestatistik/AP_KleineStatistik_EN_2015_BE.pdf



2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는 2018년 9월 만 25-74세 서울시민 1,1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자 553명(50.2%), 여자 549명(49.8%)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25-34세가 262명(23.8%), 만 35-44세가 270명(24.5%), 만 45-54세가 275명(25.0%), 만 55-64세가 251명(22.8%), 만 65-74세가 44명(4.0%)이었다.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관계와 만족도, 가족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응답자 특성
(단위: 명)



1) 가족의 중요성

▶ 서울시민은 가족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점 만점에 평균 4.72점)

‘귀하의 가족은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4.72점으로, 응답자 1,102명 중 75.86%인 836명이 가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의 중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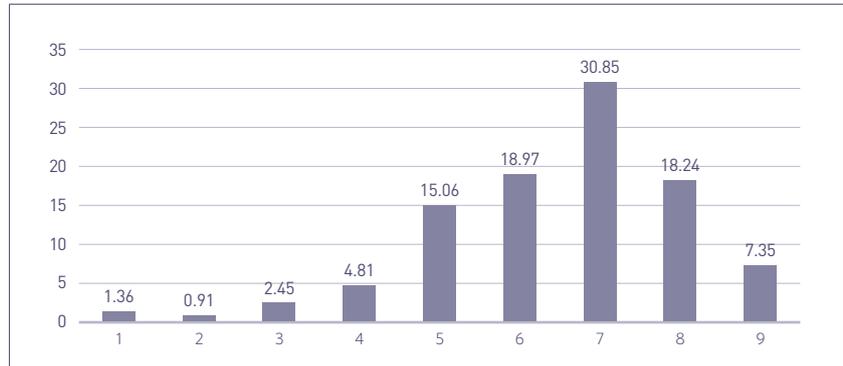


2) 가족생활의 행복

▶ 서울시민은 가족생활이 행복한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점 만점에 평균 6.47점)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라는 질문에 9점 만점에 전체 평균 6.47점으로 행복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1,102명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7~9점으로 응답하여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가족생활의 행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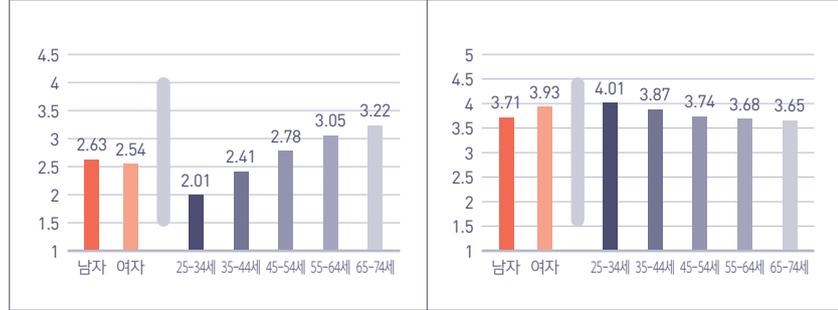
3) 가정내 성역할에 대한 생각

▶ 서울시민들은 가정내 남녀의 전통적 역할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5점 만점에 평균 2.59점)

▶ 서울시민들은 가정내 평등한 역할에 동의하는 편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25-34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동의하는 편입니다. (5점 만점에 평균 3.82점)

남녀의 가정내 성역할에 대해서 전통적 역할과 평등한 역할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전통적 역할에 대해서는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다’,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집안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여자의 책임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편이어야 한다’로 4개 문항이며, 평등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로 2개 문항이다. 전통적 역할에 대해 남자는 2.63점, 여자는 2.54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전통적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져 65-74세 응답자가 가장 전통적이었다. 평등한 역할에 대해 남자는 3.71점, 여자는 3.93점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평등한 역할에 대해 더 많이 동의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5-34세가 평등한 역할에 가장 동의하였다.

가정내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생각
(단위: 점)



가정내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생각
(단위: 점)

4)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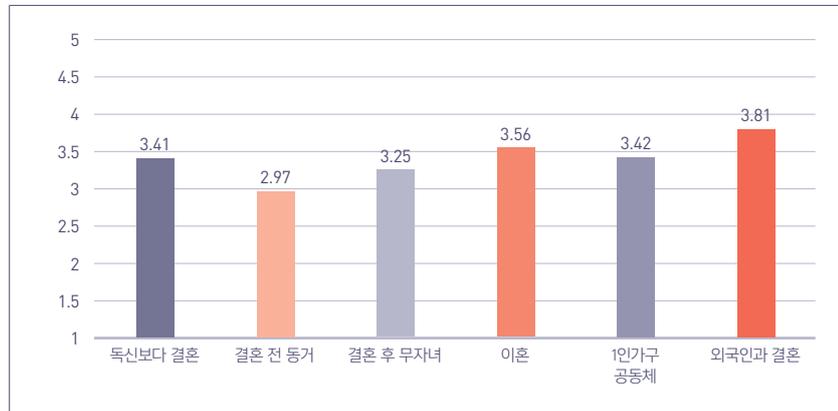
▶ 서울시민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에 대해(5점 만점에 평균 3.41점),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에(5점 만점에 평균 2.97점),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5점 만점에 평균 3.25점)는 것에 약간 동의하는 편입니다.

▶ 서울시민들은 1인가구가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것에 대해(5점 만점에 평균 3.42점),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5점 만점에 평균 3.81점) 약간 동의하는 편입니다.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중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평균 3.41점으로 약간 동의하였으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2.97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문항에 대해 3.25점으로 약간 동의하는 수준이었으며,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3.56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1인가구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것도 괜찮다’는 문항에 대해 3.42점으로 약간 동의하였으며, ‘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3.8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다.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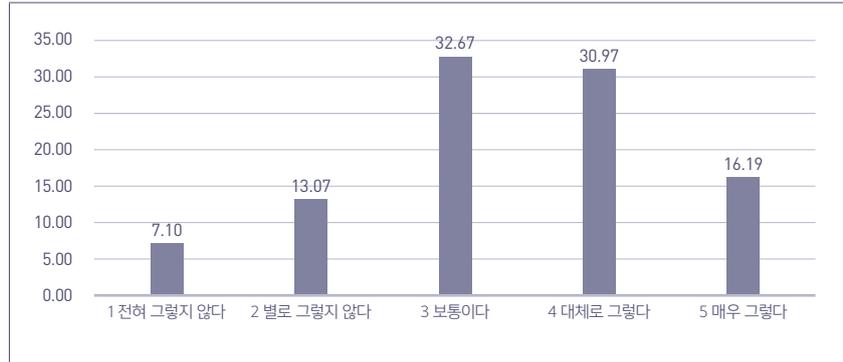


5) 미혼 응답자의 결혼의향

▶ 미혼인 서울시민 중 절반은 결혼할 의향이 있습니다. (5점 만점에 평균 3.36점)

전체 응답자 1,102명 중 자신의 상태를 미혼이라고 응답한 352명에게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16%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미혼 응답자의 결혼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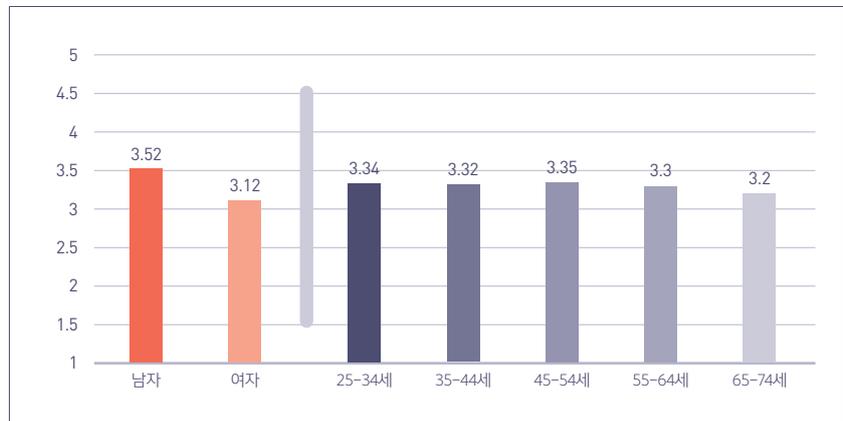


6) 부모 부양과 자녀양육

▶ 서울시민은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동의하는 편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동의합니다. (5점 만점에 평균 3.32점)

서울시민에게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물었을 때 남자가 3.52점, 여자가 3.12점으로 남자가 약간 더 동의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
(단위: 점)



▶ 서울시민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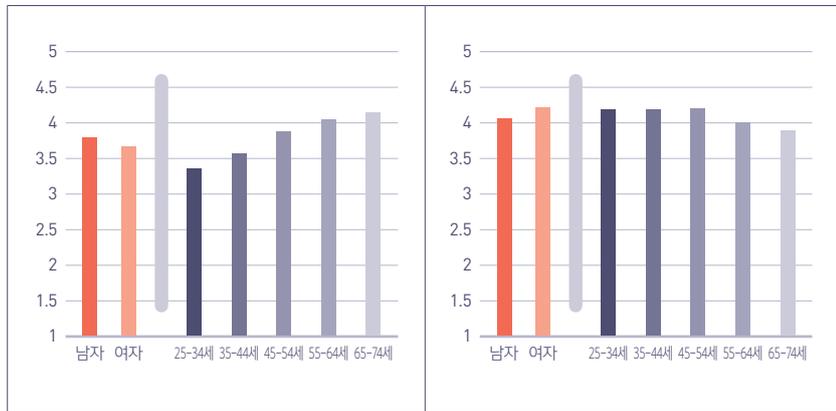
(5점 만점에 평균 3.74점)

▶ 서울시민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45-54세가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점 만점에 평균 4.14점)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즐거움과 경제적 부담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먼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해서는 남자가 평균 3.80점, 여자가 평균 3.68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강하게 동의하였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남자가 4.07점, 여자가 4.21점으로 여자가 더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45-54세가 가장 강하게, 65-74세가 가장 약하게 동의하였다.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즐거움
 (단위: 점)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경제적 부담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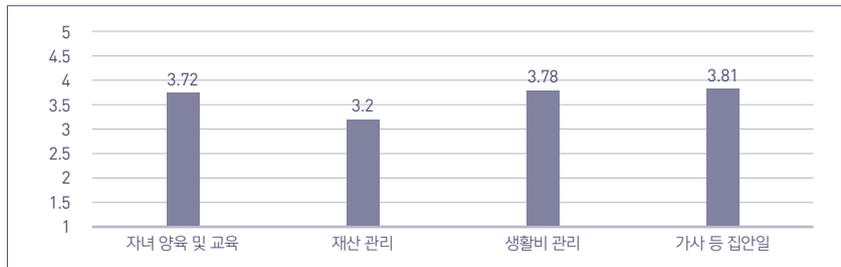
3 서울시민의 가족관계

1) 부부관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민들은 자녀양육 및 교육, 재산관리, 생활비 관리, 집안일에 대해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응답자 1,102명 중 배우자가 있는 707명을 대상으로 부부역할 분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양육 및 교육, 재산관리, 생활비 관리, 가사 등 집안일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아내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점일 경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는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가 한다고 생각). 자녀양육 및 교육은 평균 3.72점, 재산 관리는 평균 3.20점, 생활비 관리는 평균 3.78점, 가사 등 집안일은 평균 3.81점이었다.

부부역할분담
(단위: 점)



▶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민들의 35.5%가 평일 하루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부부 대화시간을 가집니다.

평일에 배우자와 대화한 시간이 평균 30분~1시간이라고 한 응답자가 35.5%, 1시간~2시간이라고 한 응답자가 25.3%, 30분 미만이라고 한 사람이 25.0%였다. 2시간 이상이라는 응답도 12.9%였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이었다.

배우자와 평일 하루 평균 대화시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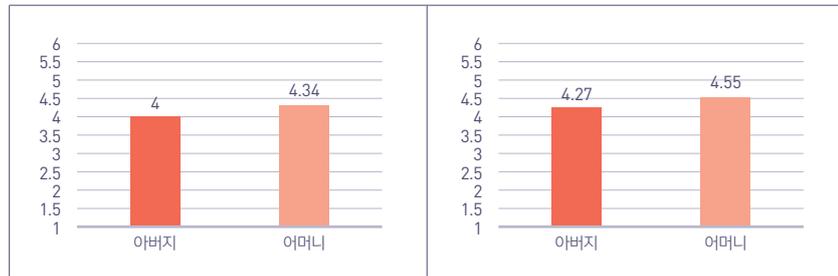
2) 부모자녀관계

(1) 자녀와의 관계

▶ 만 12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서울시민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응답자 1,102명 중 만 12-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 288명, 만 25세 이상에 해당하는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 283명에게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친밀감, 상호이해 정도 등(4개 문항, 각 6점 만점)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아버지는 평균 4.00점, 어머니는 4.34점이었고, 성인자녀의 아버지는 4.27점, 성인자녀의 어머니는 4.55점으로 두 가지 질문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더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와의 친밀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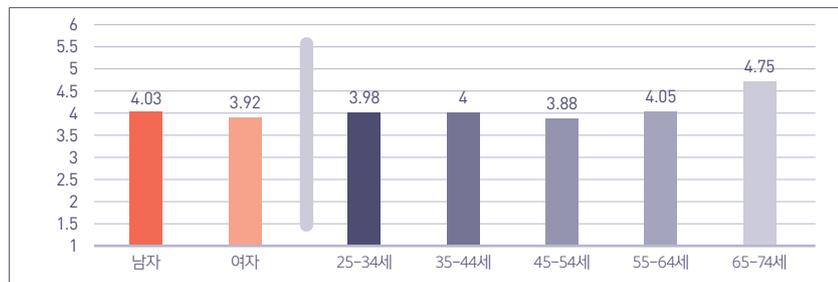
성인자녀와의 친밀감
(단위: 점)

(2) 부모와의 관계

▶ 부모가 있는 서울시민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65-74세가 다른 연령대보다 부모와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응답자 1,102명 중 부모가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899명에게 부모와의 관계(친밀감, 상호 이해 등 4개 문항, 각 6점)를 물어보았을 때, 남자는 평균 4.03점, 여자는 3.92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님과 더 친밀하다고 생각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5-54세가 평균 3.8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65-74세가 평균 4.75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모와의 친밀감
(단위: 점)





4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

”

만혼화, 소가족화, 고령화 등 가족의 변화를 반영한 가족정책

만혼, 비혼,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의 구조적 다양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가족원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가족정책은 예방적,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가족원이 돌봄의 권리를 누리고,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족원의 권리와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족정책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가족 규범이 공고하게 유지되어온 탓에 한국가족에는 세대 간, 젠더 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가족생활을 침식하는 일 중심, 성과 중심 문화도 만연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관계와 권리,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족친화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가족의 삶이 존중받고, 세대와 젠더에 관계없이 가족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족 주도,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정책

출산장려, 인구증가 등 국가 중심의 일방향적 정책이 아니라 가족의 관점에서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가족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역사회를 토대로 다양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신뢰를 쌓고 어울려 살 기회와 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은 서울시, 지역사회,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고 누리는 정책입니다.

미래지향적 가족정책

가족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하며 새로운 문화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서울시의 가족정책은 어른, 아이, 남성, 여성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가족의 새로운 요구를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돕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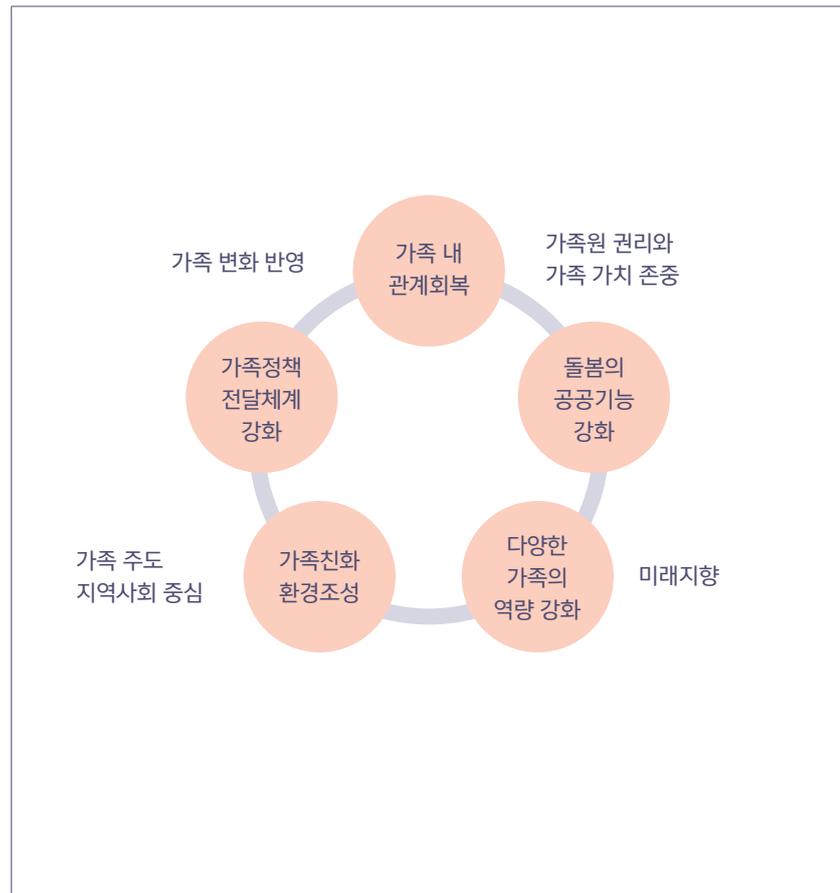
서울시 5대 가족정책

서울시 가족정책의 5대 영역은 ① 가족 내 관계회복 ②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 ③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④ 가족친화 환경조성 ⑤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 ① 가족 내 관계회복을 위해 공감·소통의 가족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지원합니다.
- ② 돌봄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촘촘한 자녀돌봄망을 구축하고, 우리아이 안전망을 확대 하며, 미래세대 행복도시를 조성하고, 어르신·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1인가구를 지원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며, 한부모, 다문화, 이혼, 조손 가족을 지원합니다.
- ④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고, 문화와 심이 있는 가족의 삶을 지원하며, 평등과 존중의 가족가치를 확산합니다.
- ⑤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가족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통기회를 확대 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을 통해 서울은 모든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가 됩니다.

서울시 가족정책



2018
희망서울 행복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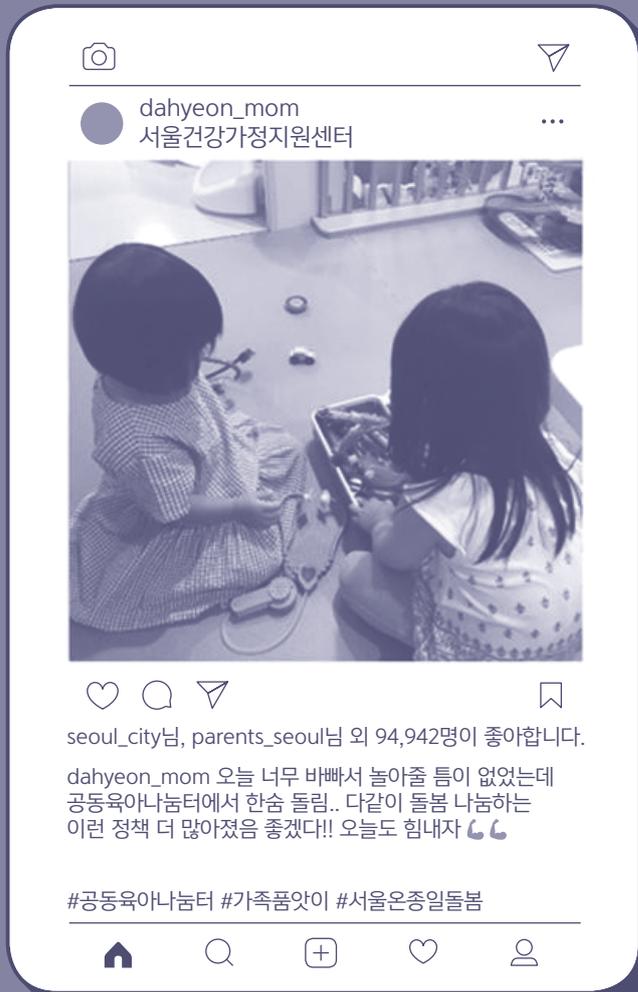
II 마을이 함께 돌보는 서울

1. 믿고 안심하는 영유아 돌봄
2. 빈틈없이 촘촘한 초등 돌봄
3. 가족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돌봄

“

다현이 엄마는 다현이를 2015년에 낳고
복직한 워킹맘이에요.

지금 다현이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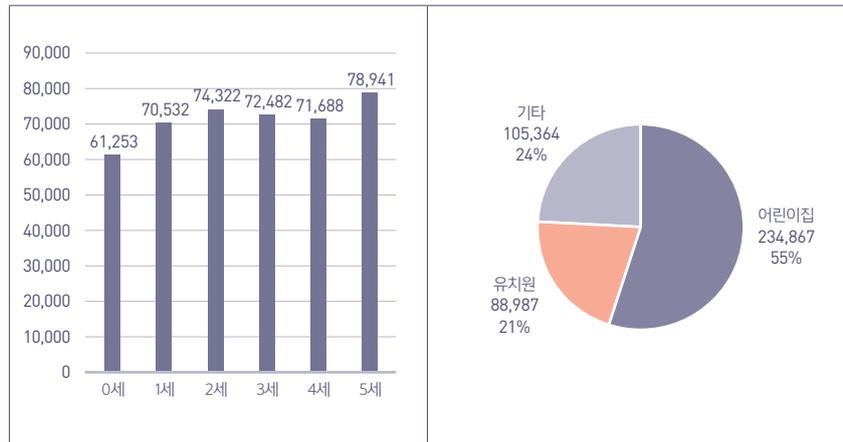
1 믿고 안심하는 영유아 돌봄

◎ 서울시 영유아 열 명 중 여덟 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2017년 서울시의 만 0~5세 영유아 인구는 429,218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이다. 이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34,867명(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통계)으로 전체 영유아의 54.7%, 유치원 이용 아동은 88,987명(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서울교육통계)으로 전체 영유아의 20.7%이다. 영유아 10명 중 약 8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은 영유아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다.

2017년 서울시 영유아 아동 인구수
(단위: %)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기관 이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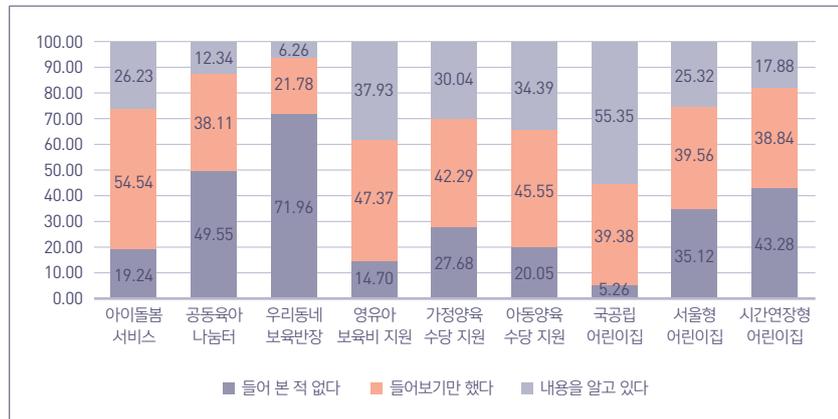
출처: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17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육아정책연구소)에 의하면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5점 만점)는 직장어린이집이 4.4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4.20점,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이 각각 4.15점, 4.14점이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각각 4.04점, 4.0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영유아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은 첫 번째가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이 21.8%로 가장 많았다.

◎ 영유아 돌봄 정책 인지도 및 이용여부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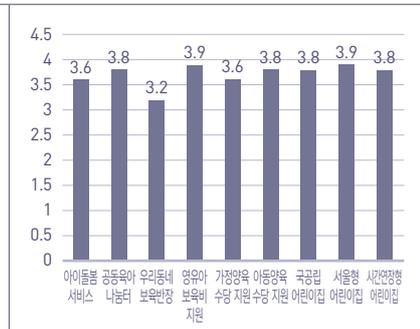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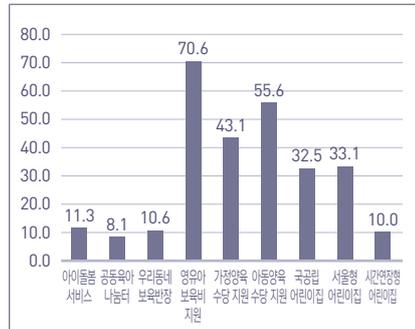
2018년 9월 서울시민 1,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영유아 돌봄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55.35%로 가장 높았으며, '영유아 보육비 지원' 37.93%, '아동양육수당 지원' 34.39%, '가정양육수당 지원' 30.04%이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26.23%,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6.26%의 응답자가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아동돌봄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 (단위: %)



만 8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서울시민 16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 정책을 이용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70.6%가 이용해보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양육수당 지원' 55.6%, '가정양육수당 지원' 43.1% 등 경제적 지원을 이용해 본 응답자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형 어린이집' 33.1%, '국공립 어린이집' 32.5%, '아이돌봄서비스' 11.3%의 순이었다. 이러한 정책을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도(5점 만점)를 물어본 결과, '서울형 어린이집'이 3.9점, '공동육아 나눔터', '아동양육수당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3.8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3.6점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 정책 이용여부 (단위: %)



아동돌봄 정책 만족도 (단위: 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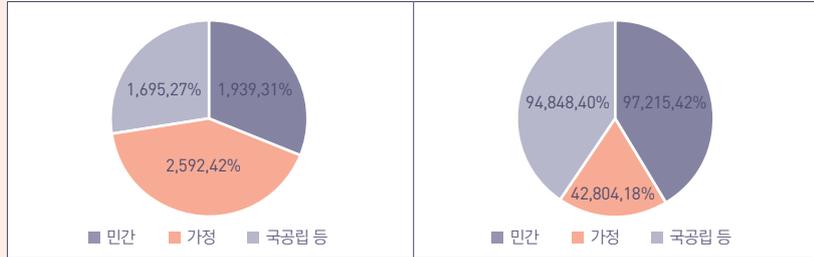
(1) 보육서비스

▶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립유치원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전국보다 높다.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수의 7.8%, 재원 아동은 전체의 12.9%인데 비해 서울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수의 20.5%, 재원 아동은 전체의 31.5%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통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5년에 163개소, 2016년에 302개소, 2017년에 27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고, 2018년에는 263개소를 더 확충하여 1,524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의 어린이집 형태별 개수

출처: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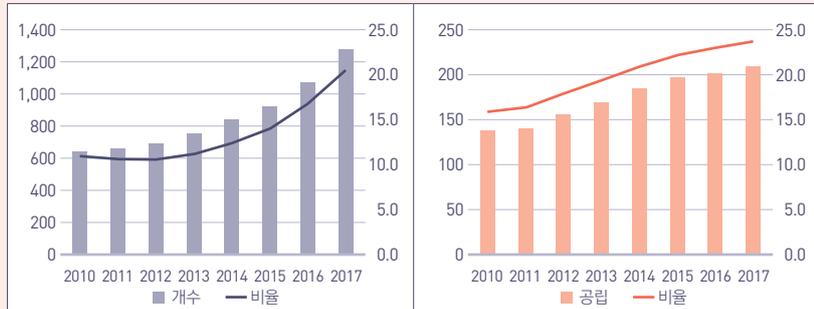
이용아동수

출처: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서울시 공립유치원의 수는 전체 유치원 수의 23.8%, 학급수는 전체 학급수의 18.1%, 재원 아동은 전체의 16.9%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서울교육통계). 서울시에서는 병설유치원 미설치 초등학교에 설립 가능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개발지역 신설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고 있다. 병설유치원 신설목표치는 2018년에 16개원(47학급), 2019년에 8개원(26학급), 2020년에 10개원(36학급)이며, 증설목표치는 2018년 9개원(11학급), 2019년 6개원(11학급), 2020년 7개원(14학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수 및 비율

출처: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17년 서울시의 공립유치원 개수 및 비율

출처: 서울교육통계,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형 어린이집 ④ 서울

2017년 서울시의 민간어린이집은 1,939개, 가정어린이집은 2,592개로 전체 어린이집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8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맞춤(취약)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확보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기준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은 900여개 (서울시 보육포털)로 민간어린이집의 절반을 차지한다.

(2) 마을과 함께하는 영유아 돌봄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서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 장소와 이웃 간 가족품앗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160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18년 16개 센터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품앗이는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해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부모교육품앗이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가족품앗이 모집 공고 사례

출처: 패밀리넷 홈페이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신규 가족품앗이를 모집합니다!

가족 품앗이란?
3가족이상의 부모 및 자녀가 모여 놀이·재미·학습활동 등 자유롭게 부모의 재능과 육아경험을 나누며 자녀양육을 함께하는 공동체
ex) 재능활동 품앗이, 놀이 품앗이, 학습 품앗이, 매체능·취미활동 품앗이, 부모교육 품앗이

품앗이 활동 장소
-구본터 공동육아나눔터
-구본터 공동육아나눔터
-청량리온도서점
-희망가정 및 외부

신청방법
-신청과정: 전화접수>기업신청서 작성>오리엔테이션>활동시작
-접수 및 문의: 02-883-9383 (건강가정사업팀 정윤경)

단체놀이 활동 품앗이 뜨개질 활동 품앗이 책 놀이 활동 품앗이

서울가정건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함께 하면 더 나은
가족 품앗이 모집

가족 품앗이란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지니는 가족이 모여 육아정보를 나누고,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 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적 성장을 돕는 좋은 활동입니다.

활동 내용 및 지원 내용
- 활동 내용: 오감발달 등의 놀이 활동, 독서 및 학습 활동, 등·하교동행품앗이 등
- 봉사 없이 진행되는 저소득층
- 지원 내용: 활동 지원 물품 제공 (월 3만원)

모집 가족
- 활동 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 선착순 2그룹 모집

활동 기간 및 장소
- 2018년 5월 ~ 12월
- 공동육아나눔터 외 품앗이에서 원하는 장소

서울가정건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공동육아 및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서울**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사업을 지원하는데, 부모가 마을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과 '부모커뮤니티 사업'이 대표적이다.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와 이웃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모임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육아를 필수로 하며, 발달·체험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운영, 재능기부나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부모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자녀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을 지원한다.

마을에서 함께 아이를 키워요!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온라인 뉴스레터 <서울 마을 이야기> vol. 62



이용 방법

공동육아 및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홈페이지 : www.seoulmaeul.org
-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최소 돌봄 아동 5명 이상(영유아 원칙, 장애아동 등 사회적 배려대상 육아 모임은 3명 이상)
 - 350~1,000만원 내외 지원(돌봄아동수에 따라 구분 지원)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 200만원 이내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우리동네 보육반장 ☪ 서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8개의 시도 센터와 자치구 센터들이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101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 모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하는 동시에 부모교육 및 상담,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육아 자원을 발굴하여 양육자에게 원스톱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육아경험이 있는 선배 엄마(보육반장)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어린이집 등)에 대한 정보, 육아상담, 육아정보 등을 제공한다. 부모 자조모임과 보육반상회를 지원하고 한부모·다문화·새터민 등 가정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4~7명의 보육반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 총 140명의 보육반장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이용
방법

- 홈페이지 : <http://seoul.childcare.go.kr>
- 신청방법
 - 전화 : 국번없이 120-123번
 - 인터넷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우리동네보육반장
 - 스마트폰 : '엄마와' 앱
- 상담내용
 - 우리동네의 숨겨진 육아 정보가 궁금할 때
 - 우이아이 키우면서 궁금한 점을 알고 싶을 때
 - 마음이 맞는 엄마들과 육아 모임을 함께 하고 싶을 때
 - 우리 동네 육아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 출산, 전입, 다문화, 새터민 가정이라 우리 동네 정보가 부족할 때

▶ 종일제, 시간제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으로 돌봄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선생님을 파견하는 서비스로 종일제돌봄과 시간제돌봄이 있다. 종일제돌봄은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하루종일 돌보는 서비스이며, 시간제돌봄은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최소 2시간 이상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해 소득유형별로 비용을 지원하는데 2019년부터는 정부지원 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높여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변경 내용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별 유형 개편(안)>

'18년		'19년	
'가'형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기준 월 221만 원 이하)	'가'형	75% 이하 (3인 기준 월 282만 원 이하)
'나'형	60% 초과~85% 이하 (3인 기준 월 313만 원 이하)	'나'형	75% 초과~120% 이하
'다'형	85% 초과~120% 이하 (3인 기준 월 442만 원 이하)	'다'형	120% 초과~150% 이하 (3인 기준 월 564만 원 이하)
'라'형	120% 초과 (3인 기준 월 443만 원 이상)	'라'형	150% 초과 (3인 기준 월 565만 원 이상)

* '18년, '19년 모두 '가'~'다'형 정부지원(음영표시), '라'형 미지원

* '19년에는 '19년 확정 중위소득 기준('18. 7월 발표) 반영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비율 비교>

<2018년 : 시간당 7,800원>

<2019년: 시간당 9,650원>

유형 (중위소득)	영아 종일제	시간제		유형 (중위소득)	영아 종일제	시간제	
		미취학	취학			미취학	취학
가형 (60% 이하)	75%	80%	70%	가형 (75% 이하)	80%	85%	75%
나형 (85% 이하)	55%	50%	-	나형 (120% 이하)	60%	55%	20%
다형 (120% 이하)	35%	30%	-	다형 (150% 이하)	15%	15%	15%
라형 (120% 이상)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라형 (150% 이상)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서울시에서는 누구나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민원 업무, 사후관리, 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현재 2,818명이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이며 2022년까지 10,000명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서울시, 2018년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아이돌봄 서비스

- 홈페이지 : www.idolbom.go.kr
- 신청방법 (홈>아이돌봄서비스이용>서비스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므로, 사전에 국민행복카드를 준비
 - 홈페이지에서 이용자등록을 진행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 대기
 -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 완료되면 서비스이용자가 되어 신청서 작성 가능
 -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종류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돌봄 서비스와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시간제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600시간 지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종합형 돌봄서비스		· 이용 요금은 시간당 10,14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 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종일제 서비스 종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서비스안내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56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지원 정부지원 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71만 6천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영아의 특성에 맞춘 돌봄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 비용 차등 지원

그 외에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돌보는 '기관파견돌봄'과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이 있습니다.

(3) 경제적 지원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0~1세 20만원, 만 2세 15만원, 만 3~4세 10만원을 지급하며, 장애아동 만 1~2세 20만원, 만 3~5세 1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의 경우 총 11만 명의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보육료와 유아학비

영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용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를 대상으로 시설보육의 요구가 큰 아동(맞벌이, 다자녀, 장애 가족 등)은 종일반, 그 외의 아동은 맞춤반 보육료를 지원한다. 금액은 종일반은 0세 441,000원, 1세 388,000원, 2세 321,000원이며, 맞춤반은 0세 344,000원, 1세 302,000원, 2세 250,000원이다.

만 3~5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22만원,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유치원 6만원, 사립 유치원 22만원을 지원한다. 방과후 과정은 국공립 유치원은 5만원, 사립 유치원은 7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부모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23만명의 보육료 재원의 55%를 시비와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만 3~5세 3만 8천명에 대한 차액보육료는 100%에서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 아동수당 **NEW**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만 0~5세 아동(2인 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까지 지급)에게 월 10만원의 현금 수당을 지급한다.



2 빈틈없이 촘촘한 초등 돌봄

◎ 초등 돌봄의 공백과 엄마의 경력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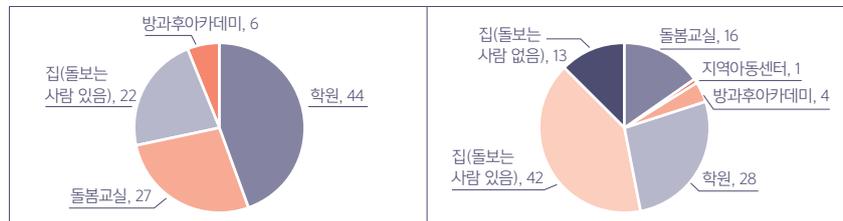
온종일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과 달리,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시간이 오후에 끝난다. 따라서 경제활동 등으로 양육자가 방과 후에 집을 비우는 가정에서는 돌봄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초등학교생의 약 40%가 방과 후에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돌봐 주는 사람이 없으며, 특히 일과시간이 일찍 끝나는 저학년의 경우 약 30.9%가 돌봄 공백을 경험한다(통계청, 2017).

초등학생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가족양립을 어렵게 하며, 특히 여성에게는 경력단절의 위기가 된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여성 가입자 18,841명이 입학 및 진급을 전후한 2~3월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경력단절여성실태조사). 초등학교 아이를 둔 취업모의 임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 평균 214만원에서 입학 뒤 156만원으로 줄고, 상용직 취업률도 80%에서 60%로 줄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17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취업모 지원 방안).

◎ 초등학생 주중 방과 후는 학원, 방학에는 집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8년 9월 서울시민 1,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106명의 응답자에 따르면, 방과 후 저녁식사 전까지 자녀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원(41.5%),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25.5%), 집(주로 돌보는 사람 있음, 20.8%), 방과후 아카데미(5.7%), 집(주로 돌보는 사람 없음, 5.7%) 이라고 응답하였다.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
(단위: 명)



방학 중 시간을 보내는 곳
(단위: 명)

방학에 초등학생 자녀가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집(주로 돌보는 사람 있음, 39.6%), 학원(26.4%),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15.1%), 집(주로 돌보는 사람 없음, 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인지도 및 이용 여부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1,102명 중 들어
보기만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46.01%로 가장 많았고,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56%,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3.43%로 나타났다. 들어본 적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146명 중 이용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46명에 대해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9점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인지도
(단위: %)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형편에 따라 자리가 있는 경우 3학년 이상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는 2017년 서울시의 전체 초등학교 601개 중 757개로 95.7%를 차지한다. 참여학생수는 서울시의 전체 초등학생 428,333명 중 31,135명으로 이용률은 7.3%이다. 2015년, 2016년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서울시의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수와 비율

출처: 2017년 서울교육통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 학생 수와 비율

출처: 2017년 서울교육통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의 <2018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아침 및 오후, 저녁 돌봄교실이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학년별 특성과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형태가 다양화된다. 또한 방학 등 휴업일 중 돌봄교실 운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등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며, 돌봄교실 온라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인 및 모든 활동 프로그램 등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돌봄교실 급·간식을 운영한다.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돌봄교실 환경을 개선하며 돌봄전담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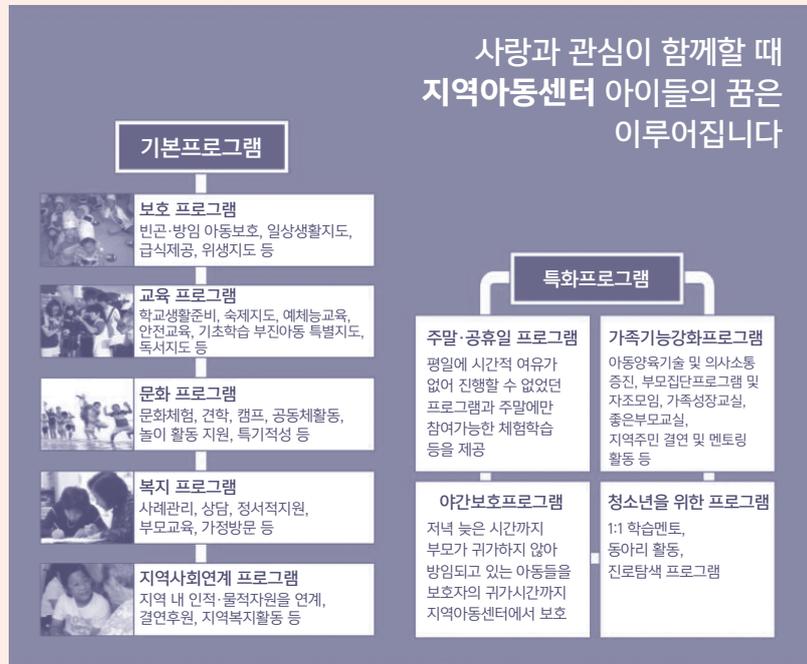
시기	대상	하루 일과			
방학중	전학년	아침돌봄	오전돌봄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저녁돌봄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학기중	3-6학년	-	정규 교육과정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1-2학년	아침돌봄		오후돌봄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아동 보호(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 지원), 정서적 지원(상담·가족 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를 제공한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에 4,189개 센터, 서울시에는 450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2017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서울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2017년 21개에서 2018년에는 25개소 추가 설치하는 등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소개

출처: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이용
방법

- 홈페이지 : www.icareinfo.go.kr
- 홈>정보마당>우리동네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찾기

우리동네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찾기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찾기

찾으시려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을 클릭해주세요.
시도별로 선택후, 각 아동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5일 운영원칙
지역아동센터별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가능
(기본운영시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이상 운영)
- 기본운영시간:
학기중: 14:00~19:00 (필수운영시간)
방학 및 공휴일: 12:00~17:00 (필수운영시간)



서울 [v] 시군구 선택 [v] 센터명 [v] 검색

-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거주지역의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필요시간(토요일 이용 희망여부 포함) 등을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시군구청 제출

▶ 우리동네 키움센터 **NEW** 서울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지역 중심의 돌봄 시스템을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진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서울형 다함께 돌봄센터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열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급식)제공 등이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4개 시범 센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00개소의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출처: 중앙일보(2018). 독일 초등생 수업 마치면 '전일제 학교' 옮겨가 논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508591>

독일 본에 있는 뮌스터 초등학교, 전교생(1~4학년)이 전일제 학교에 참여



독일

- 전교생 1~4학년(독일은 4년제) 216명은 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 1~2시쯤 두 블록 걸어서 전일제 교육시설로 이동한다. 시와 위탁계약을 한 보육교사 12명, 실습 및 자원봉사자 25명이 오후 수업을 담당한다. 보통 4시반~5시반까지 이용한다. 4시반까지는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식비는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담한다.
- 초등학교 교사는 오전 수업을 마치면 업무가 끝난다. 오후 수업은 전일제 학교 몫이다. 학생들이 전일제 학교로 오면 전적으로 전일제 학교협회(학부모가 만든 비영리 법인)가 책임지고 돌본다. 안전보험 등도 협회와 주정부가 책임진다.

프랑스

프랑스 파리의 보캉송 초등학교는 6시까지 이용 가능
프랑스의 초등학교(5년제)는 대개 정규 수업 시간이 오후 4시까지이다. 이는 학년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학부모가 원하면 2시간 추가로 놀이 등 보충활동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평등성 원칙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업을 받으며, 학부모가 정시퇴근한 후 아이를 데려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었다.



3 가족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돌봄

◎ 노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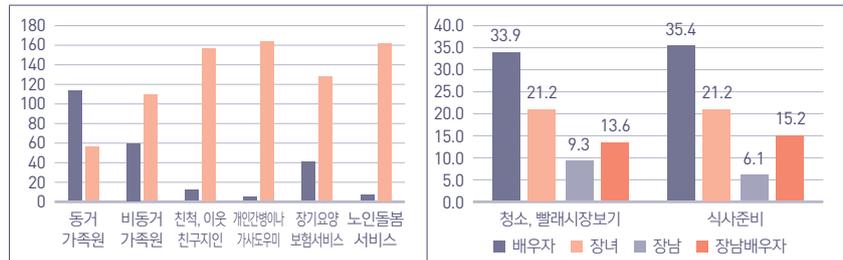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서울시 거주 노인 999명 중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169명이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 살펴본 결과, 같이 사는 가족(66.9%)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35.5%)의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개인간병이나 가사도우미에 비해 높았다. 가족 돌봄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 빨래, 시장보기, 식사준비에 대해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장녀였다.

노인 돌봄 경험 여부 (단위: 명)

출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움을 주는 사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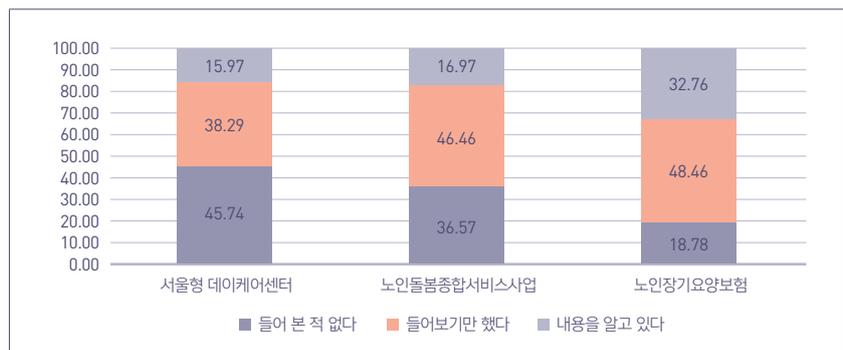
출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돌봄 정책 인지도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노인돌봄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81.2%의 사람들이 내용을 알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서는 63.4%가, 서울형데이케어센터는 54.3%가 내용을 알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노인돌봄 관련 정책 인지도 (단위: %)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각 노인돌봄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본 사람이 8.62%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5.54%, 서울형데이케어센터가 4.36% 순이었다.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도(5점 만점)를 물어본 결과, 서울형데이케어센터가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3.5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3.4점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 관련 정책 이용여부
(단위: %)



노인돌봄 관련 정책 만족도
(단위: 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서울

서울시는 치매 등 중증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을 보호하는 데이케어센터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공인하고 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는 재정지원을 통해 낮시간 뿐 아니라 밤 10시까지 야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1~5급 등급을 판정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정원의 20% 범위 내의 등급외자이며, 서비스 내용은 치매 전문 서비스, 이동서비스, 기능회복 서비스, 영양서비스, 위생·청결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등이다.

- 시설조회
 -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http://map.seoul.go.kr>)에서 서울형 지도태깅 후 좌측 '어르신 돌봄시설' 클릭 후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 지역: 서울특별시 >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설정
- 이용요금
 - 1등급 1,252,000원 ~ 5등급 843,200원
 - 이용 대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이용금액의 15%,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등급외자는 342,000원 한도 내 부담

▶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 서울

서울시는 노인 돌봄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3일 이내의 여행 휴가비와 어르신 돌봄비를 실비 지원하는 서비스로 년 1회 이용할 수 있다. 2017년에는 당일 130명, 1박2일 618명, 2박3일 450명으로 총 1,198명의 가족이 이용하였다.

▶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정부에서는 치매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사랑의 안심폰 제공사업을 하고 있다. '독거어르신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중 거동불편,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 6천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안심폰과 돌보미폰간의 영상통화, 동작감지센서, 긴급통화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출처: 2018년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주요업무 보고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안전확인, 말벗, 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요양등급 없는 거동불편 노인(경증)	사례관리,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요양등급 없는 거동불편 노인(중증)	가사 및 활동지원, 말벗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가사 및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부담금
단기가사 서비스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중증질환 수술자	가사 및 활동지원
독거어르신사회관계활성화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	그룹별 심리상담, 여가프로그램
사랑의 안심폰 서울	안전, 건강 취약 독거노인	영상폰 또는 IoT 활용 안전확인 시스템
주거환경개선사업	거동불편 저소득 독거 어르신	가스타이머, 싱크대 높낮이 개조,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사회가 나누겠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초로 산정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토대로 요양등급을 판정하는데, 1~5등급을 받은 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시설 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중 하나로 전국 보건소에 설치하여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 및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2018년 9월 현재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지금까지 122만 명이 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 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I

가족의 워라벨을 지원하는 서울

1. 가족친화적인 일터
2. 다시 시작하는 엄마의 일
3. 아빠의 일상적 돌봄 참여
4. 문화와 쉼이 있는 가족의 삶

“

진영이 아빠는 올해 진영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





1 가족친화적인 일터

◎ 서울시 신혼부부 중 52.1%가 맞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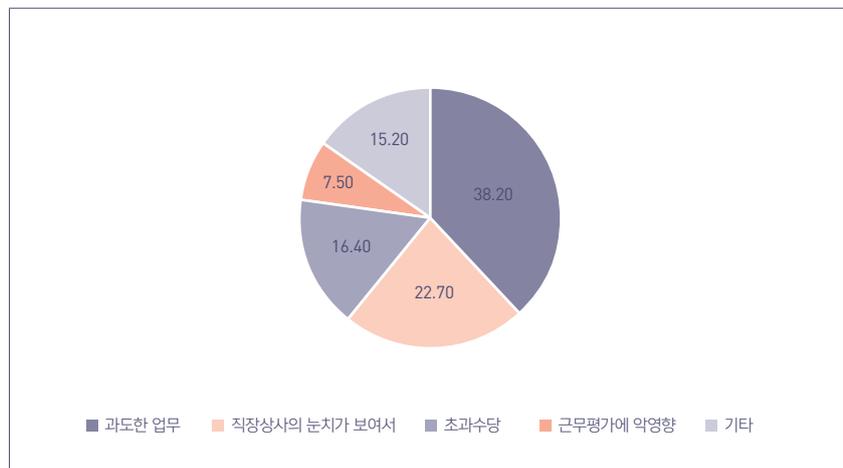
최근 5년 이내에 혼인한 서울시 신혼부부 중 52.1%가 맞벌이이며, 전년에 비해 1.9%p 증가하였다. 맞벌이부부에게는 남편과 부인 모두 일과 가족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혼부부 중 맞벌이 비율은 결혼 1년차 57.8%, 3년차 50.7%, 5년차 49.4%로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그만 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다(통계청, 2016 신혼부부통계).

◎ 장시간 근로와 가족친화성 없는 일터

OECD 주요 국가들에서는 여성고용률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고용률이 높은 경우 합계출산율이 낮다. 이는 많은 한국여성들이 출산 후 자녀양육과 일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뜻한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69.3%는 초과근로와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있으며, 과도한 업무(38.2%)와 직장 상사의 눈치(22.7%)가 초과 근로를 하는 주된 이유였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일·가족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유자녀 기혼여성이 초과 근로를 하는 이유 (단위: %)

출처: 2017 일·가족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일과 가족 사이의 갈등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5점에 가까울수록 일·가족 양립에 어려움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가 느낀 일·가족양립의 어려움의 평균 점수는 2.87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5~44세가 3.01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단위: 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1) 휴가·휴직제도

▶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유급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다태아일 경우 60일)이어야 한다. 또한, 태아검진 시간(유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기간 동안에는 시간외 근로가 제한된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의 경우와 비슷하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3일 이상의 휴가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초 3일은 유급휴가이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017년 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비율은 60.9%로 출산전후 휴가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통계청,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유급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연장근무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 단,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

(2) 가족친화 직장환경

▶ 서울시의 일·가족 양립 우수기업 **서울**

서울시는 2009년부터 일·가족 양립 직장문화조성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 실천의 주요 특징 및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혜택을 주고 있다.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 자금 지원 자격 제공,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산점 부여, 서울시 표창, 홍보 콘텐츠 지원, 서울가족사랑기업 BI 사용 가능,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기업 이미지 및 생산성을 높이는 지원을 한다.

서울가족사랑기업 BI

출처: <http://woman.seoul.go.kr/archives/19107>

서울가족사랑기업 BI



사랑을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서울가족 사랑기업의 일과 가족의 조화, 그리고 사랑을 상징합니다.

동그란 원은 사람을 뜻하는 동시에 일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뜻합니다.

BI의 전체적인 원 이미지는 사랑과 일과 가족의 조화로움을 유기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 된 회사들에게 '서울가족사랑기업' BI 사용권한을 부여해 드립니다.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여성가족부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및 사업운영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대기업 334개사, 중소기업 1,596개사, 공공기관 870개사로 총 2,800개사가 있다.

가족친화사업 운영체계

출처: <http://www.ffsb.kr/ffm/ffmCertBusiGuide.do>



▶ 직장어린이집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 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

여성가족부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가족친화경영기업들과 협력하여 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가족 관련 행사를 통해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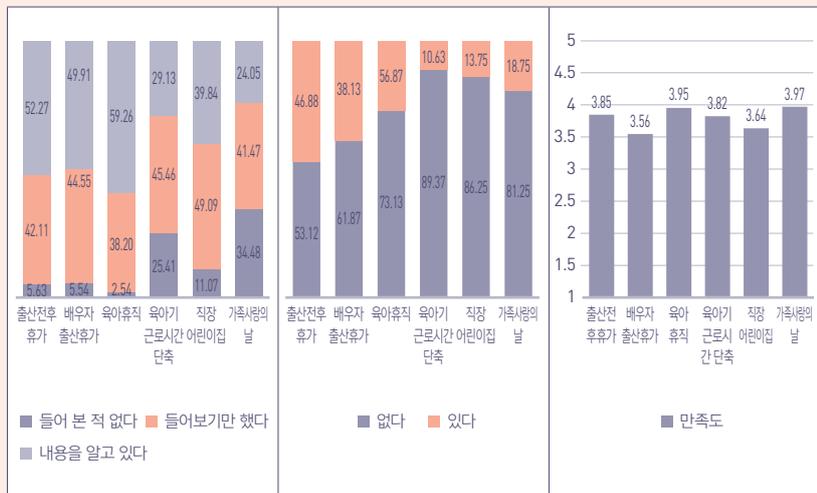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 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 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일·가족양립을 위한 연구,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캠페인, 기업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 일·가족양립 관련 정책 인지도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가족양립 관련 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가족사랑의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용 여부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가 가장 높았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낮았다.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5점 만점)는 가족사랑의 날이 3.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가족양립 지원정책
좌: 인지도(단위:%),
중: 이용경험(단위:%),
우: 만족도(단위: 점)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8호

영국

가족친화일터 정책

- 산후복직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후휴가 후 직장 복귀 시 기존과 동일한 근무기간과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 기업은 모유수유를 하는(출산 후 6개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 복직 후 모유수유를 위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 후(예: 모유수유를 하지 않으면 자녀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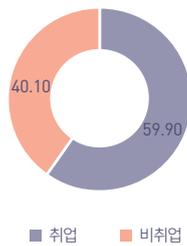
2 다시 시작하는 엄마의 일

◎ 출산과 양육으로 단절되는 엄마의 경력

서울시 기혼여성 중 비취업자는 40.1%이며, 비취업자 중 약 절반은 경력단절여성이다 (통계청, 2017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의 경력단절여성 통계를 보면 30-39세(55.9%)와 40-49세(32.4%)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여성고용 2017). 여성들의 취업 장애요인으로는 육아부담(48.7%), 사회적 편견 및 관행(24.0%), 불평등한 근로여건(9.9%) 등이 지적되어(통계청, 2017 지역별 고용조사) 육아부담으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출처: 2017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여성의 취업장애요인
(단위: %)

출처: 2017 사회조사,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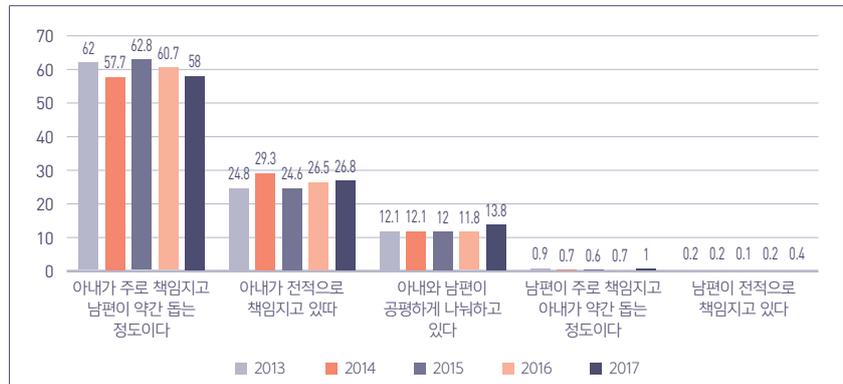


◎ 여성에게 주어진 일·가정 양립 부담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보면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라고 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58.0%),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서 한다는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부담
(단위: %)

출처: 2018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들의 직장 내 고충,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개인적 고충 해결을 돕는 센터이다. 직장맘들을 위해 ① 직장 내 권리 확보를 위한 교육, ② 보육 및 부모교육, ③ 심신통합치유를 위한 교육, ④ 직장맘을 위한 인문학,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직장맘이 자신의 고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직장부모커뮤니티 역시 지원하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25개의 직장부모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이용
방법

- 전화상담: 전화번호 02-335-0101 / 다산콜 120 + 5번
(상담시간 평일 9~18시/휴무 토요일, 공휴일)
- 온라인 상담: www.workingmom.or.kr > '종합상담' > '온라인 상담' 메뉴 클릭
- 이메일 상담: workingmom@hanmail.net
- 찾아가는 상담: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실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는 결혼과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 둔 엄마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연계,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e-새일시스템을 개편하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의 정보 공개 및 구직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전국에는 150개소가 있으며 서울 시에는 총 28개소의 새일센터가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기관입니다. 직업상담에서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중 미취업한 상태로 취업을 원하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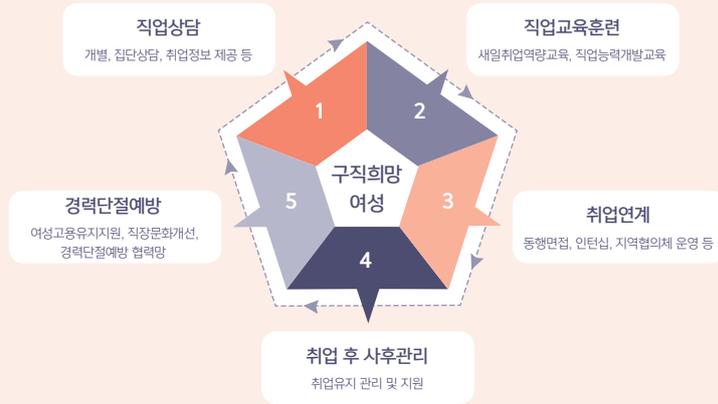
무엇을?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어디서?

전국 총 15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여성인턴사업과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일자리 체험과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이다. 참여기업은 3개월 간 월 6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턴종료 후 지속 근무시 취업장려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총 240만원). 근로자 역시 인턴 종료 후 지속 근무시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일여성인턴사업과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	이용 방법
<p>기업 참여대상</p> <p>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한 기업 ② 상시근로자 수는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p> <p>기업 제외대상</p> <p>① 소비, 향락,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일시적 및 다단계 업체 등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원 등에 대해서는 인턴연계를 지양)</p> <p>인턴 참여대상</p> <p>① 센터에 구직 등록된 경력단절 여성 및 실업 여성 (*자격조회 후 조건 충족시 인턴연계)</p> <p>근무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여성인턴: 전일제 근무 (주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전일제 근무 (주 30시간 이상) 	

▶ 서울우먼업 ④ 서울

서울우먼업(Seoulwomanup)은 서울특별시의 24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칭하는 브랜드이자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포털사이트의 이름이다. 서울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경력단절여성이나 취업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아빠의 일상적 돌봄 참여

◎ 육아휴직 사용자 6명 중 1명은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는 8,463명으로 전년 대비 65.9% 증가하였다. 2018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여섯 명 중 한 명은 아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 2018 고용보험 DB자료). 201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아빠는 총 378명이었다(통계청,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육아휴직자 수 유아기
(단위: 명)

출처: 2017 일·가정양립 지표,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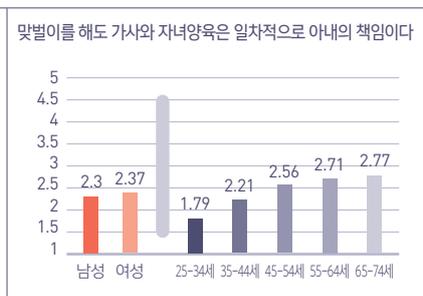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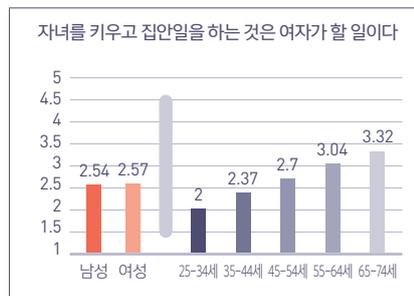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 수
(단위: 명)

출처: 2017 일·가정양립 지표, 통계청

◎가정 내 자녀양육에 대한 성역할태도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성역할태도 문항 중 가정 내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물어본 문항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다'와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의 두 문항(1-5점)이다. 점수가 높을 수록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성과 여성이 2.5점 대로 점수가 비슷하여 보수적이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5-34세가 눈에 띄게 점수가 낮으며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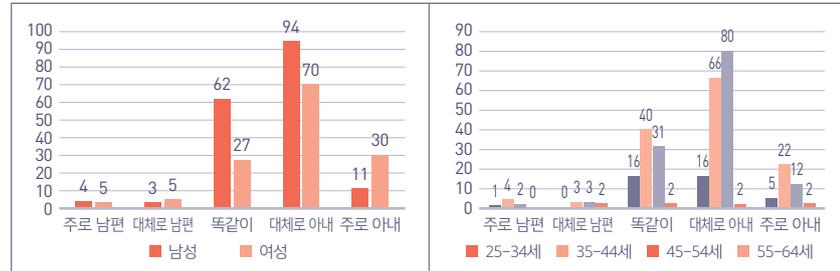
자녀돌봄과 집안일에 대한 성역할태도
(단위: 점)



자녀돌봄과 맞벌이에 대한 성역할태도
(단위: 점)

◎ 가정 내 자녀양육 및 교육 분담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을 어떻게 분담하는지는 ‘주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부터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까지 총 5개의 범주로 나눠서 질문하였다. 자녀 양육 및 교육은 ‘대체로 아내’가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5-54세가 대체로 아내가 분담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보수적이지 않은 성역할태도와는 달리 실제 생활에서는 아내가 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을, 둘째 자녀부터는 상한액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2018년부터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 서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는다. 주제는 △아빠의 자기 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 해소 방법 △코칭형 아버지 되기 △자녀와의 친밀감과 안정적 애착 관계 △효과적인 훈육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이다. 신청 기관이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패밀리서울 홈페이지(www.familyseo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 서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자유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빠자녀 건축학교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며, 주말 여가시간에 아빠와 자녀가 건축학교 수업에 함께 참여해 건축가 역할놀이, 신문지 공간 탄생, 아지트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건축학교 프로그램

출처: <https://blog.naver.com/seoulfamilyc/221038817131>



▶ **아빠육아지원(아빠넷)** <http://www.papanet4you.kr/>

아빠넷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육아휴직 관련 남성들을 위해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남성 육아휴직을 낯설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하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하였다. 남성의 육아휴직·육아 참여·직장 복귀 등을 지원하며 아빠 맞춤형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아빠넷 홈페이지

출처: <http://papanet4you.kr/>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18 이슈와 논점 1427호

노르웨이

남성할당제

- 노르웨이는 남성할당제와 같이 특정 부모를 지정하는 방식의 육아휴직을 택하고 있다.
- 할당제 도입 이전 4%에 머물던 노르웨이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이후 90%까지 높아졌다.
- 노르웨이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육아휴직이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제도는 둘째 아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웨덴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 스웨덴은 부모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의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 스웨덴은 1974년도에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부모합산 480일의 육아휴직기간 중 각 부모가 90일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소멸된다.
-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남성육아휴직 참여율 최상위권의 7개 국가들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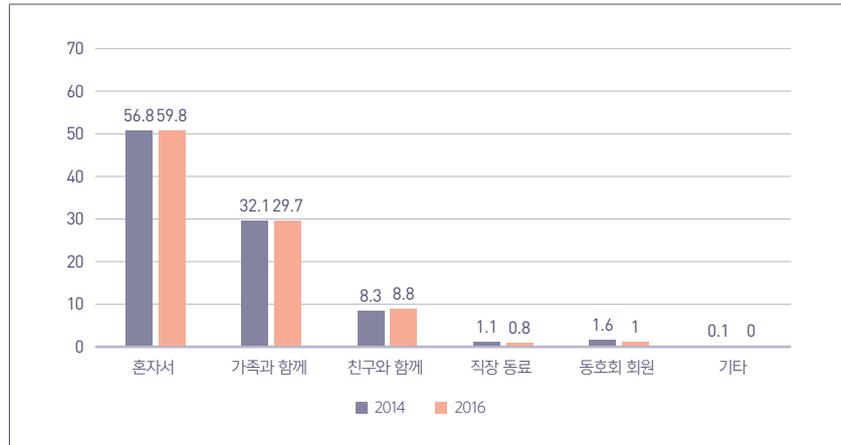
4 문화와 심이 있는 가족의 삶

◎ 여가시간이 부족한 서울 가족

서울시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4년 44.1시간으로 전국 평균 43.8시간보다 길고, 평균 통근시간은 46분으로 전국 평균인 40분보다 길다. 시간이 길다 보니 여가 시간이 부족하고, 특히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서울시민의 한 달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2.7시간으로 전국 평균인 3.1시간보다 짧으며, 휴일 또한 4.3시간으로 전국 평균인 5.0시간보다 짧다. 서울시민의 실제 여가시간은 희망하는 여가시간인 평일 4.0시간, 휴일 6.0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여가활동 동반자
(단위: %)

출처: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가족여가시간이 불충분한 서울가족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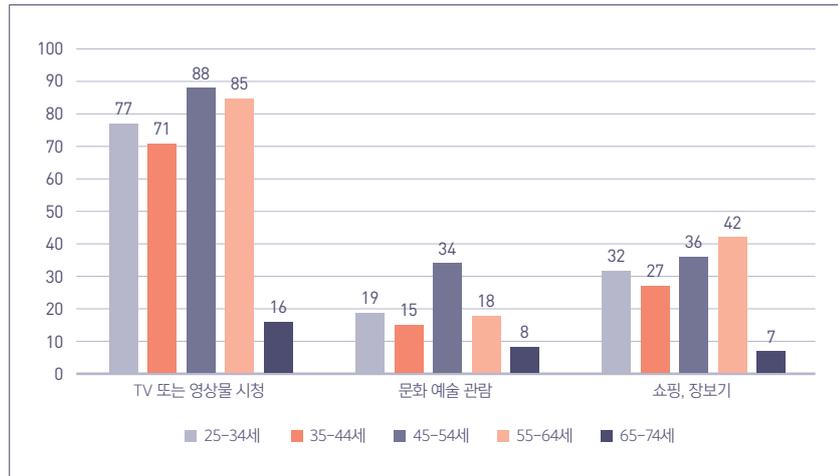
응답자들은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5세-54세까지 전반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55세 이상 집단에서만 가족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26.69%), '경제적 부담 때문에'(23.50%), '일이 너무 바빠서'(23.31%) 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충분한가
(단위: %)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들은 가족과 함께 한 여가활동으로 TV 또는 영상물 시청을 하며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쇼핑·장보기와 문화 예술 관람이 뒤따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65~74세의 가족 여가활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
1-3순위
(단위: 명)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가족 사랑의 날과 토요일가족돌봄나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중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야구장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은 [문화포털](www.culture.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매월 1회 이상 수요일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가족단위의 돌봄 나눔이 가능하도록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출처: https://www.familynet.or.kr/program/tab1.do?p_seq=81765

https://www.familynet.or.kr/program/tab1.do?p_seq=87453

토요일가족돌봄나눔 프로그램 일정

출처: https://www.familynet.or.kr/program/tab1.do?p_seq=81765

https://www.familynet.or.kr/program/tab1.do?p_seq=87453

5월 가족사랑의 날
가족의 달 5월이 왔어요!
가족과 함께 영화관 관람을 권하며, 가족과 함께 영화관 관람의 장을 넓혀주세요!

무비데이!
가족의 달 5월이 왔어요!
가족과 함께 영화관 관람을 권하며, 가족과 함께 영화관 관람의 장을 넓혀주세요!

신청대상
1.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합니다.
2. 영화 관람 시간은 신청하신 시간이 됩니다.

*** 진행 일시 :** 5월 16일 (수요일) 19:40~10:20

*** 진행 장소 :** 롯데시네마 서울대입구점

*** 모집 대상 :** 관악구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20명 (연말연시/내외국인)
* 참가비용: 신청하신 금액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남은 금액은 환불됩니다.
*** 신청 방법 :** 열린가족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 문의처: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전화,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5월 7일(수) 10:00 - 신청은 마감 시

*** 참가비 :** 1인당 3,000원 (ex. 3명 신청 시 9,000원)

*** 문의전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02-471-0812-3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놀이하는 학교다!
애들아~ 놀러와!

랑랑 다(多)나라놀이학교

[토요일가족돌봄] "세계놀이 배워요~"

[1회기] 바색치기 놀이(11:00-12:00)
바색치기(우리나라) vs 푸배보위(중국) vs 부영군(캄보디아)
여러 나라의 바색치기 놀이를 비교 체험해보아요~

[2회기] 제기차기 놀이(13:30-14:30)
제기(우리나라) vs 띠기오(베트남) vs 띠엔츠(중국) vs 씨베(필리핀)
우리나라 제기도 만들고, 여러 나라의 제기차기 놀이를 비교체험해보아요~^^

- 날짜 : 11월 10일(토) | **- 대상 :** 관악구 거주 6세~9세 아동(10명)

- 장소 : 관악 청소년회관 4층 대강당(5호선 명일역, 4번출구)

- 내용 및 시간 : [1회기] 바색치기 놀이(11:00-12:00)
[2회기] 제기차기 놀이(13:30-14:30)

- 신청 및 문의 : 교육지원팀 (02-471-0812-3)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시 가족친화 문화조성 프로그램⁷⁾

①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

서울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조성과 농업, 농촌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4세 이상 어린이가 포함된 4인 이내 가족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버스, 기차여행 프로그램 및 1박 2일의 농촌체험 캠프로 구성되어있다.

② 서울시 가족스포츠캠프

서울시가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스포츠와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 스포츠 캠프를 운영한다. 특히 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은 비용부담 전혀 없이 가족과 함께 캠핑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 서울 정보소통광장

도시가족 주말농부 포스터

출처: https://www.nhtour.co.kr/web/product/nh_travel.php?ptype=view&it_id=1535011641&code=pack&catcode=101600



예술로 놀장 프로그램 포스터

출처: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084638>



▶ 서울시50플러스센터 ☺ 서울

서울시50플러스센터는 50세 이상 세대의 인생설계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지역 활동 거점이다. 50세 이상 세대의 퇴직 후 새로운 인생비전 창조를 위해 1) 인식의 전환-새로운 노년의 상 2) 삶의 질 향상-균형 잡힌 인생 재설계 3) 참여와 나눔-사회 참여와 경험 나눔을 통해 돕는다.

서울시50플러스포털 사이트

출처: <https://50plus.or.kr/>



2018
희망서울 행복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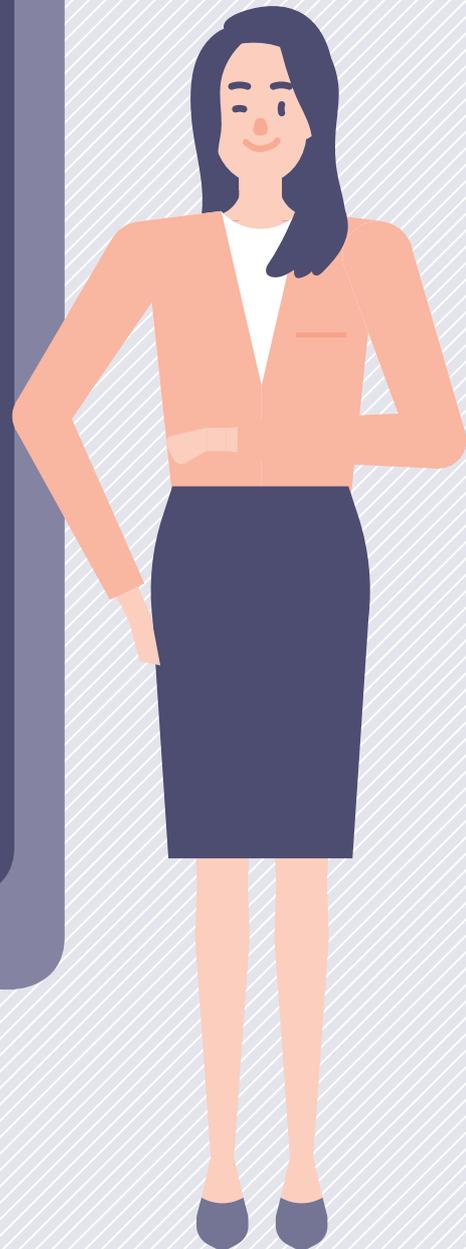
IV

가족관계가 행복한 서울

1. 공감과 소통의 가족관계
2.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가족
3. 가족 위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소희씨는 2018년 철우씨와 결혼하고
아직은 낯선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하고 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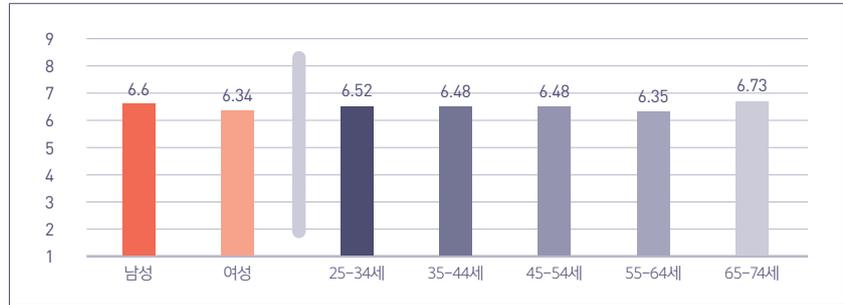


1 공감과 소통의 가족관계

◎ 대체로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서울가족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라는 질문(9점 만점)의 평균은 6.4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아서 대체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성별을 비교하면 남성이 평균 6.60점, 여성이 평균 6.34점으로 남성이 약간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전반적으로 6점대로 유사했으며, 65-74세가 평균 6.73점으로 가장 높았고 55-64세가 평균 6.35점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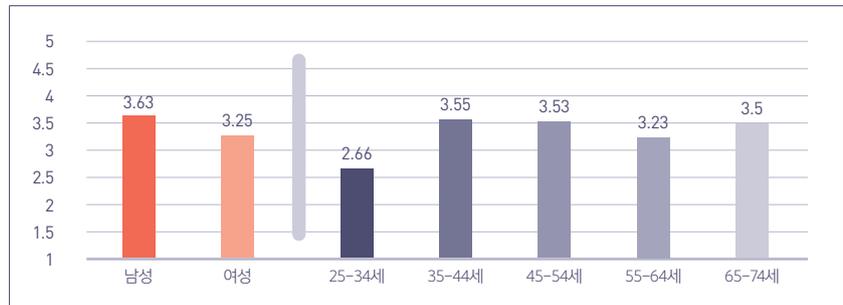
가족생활의 행복
(단위: 점)



◎ 남편과 부인이 서로 다른 부부관계 만족도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기혼상태인 응답자에게 부부관계에 만족하는 정도(5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남성이 3.63점, 여성이 3.25점으로 남성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5-34세의 응답자들이 2.66점으로 부부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5-44세가 3.5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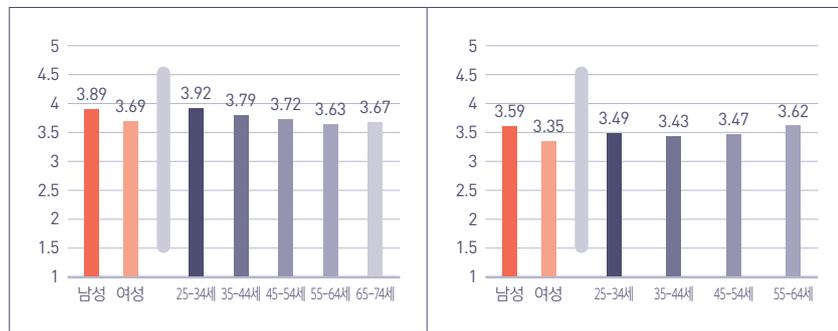
부부관계 만족도
(단위: 점)



◎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는 서울시민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5점 만점)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따로 조사하였다.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는 평균 3.79점, 아버지와는 평균 3.47점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성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는 아들의 평균이 3.89점, 딸의 평균이 3.69점으로 아들이 더 만족하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또한 아들의 평균이 3.59점, 딸의 평균이 3.35점으로 아들의 점수가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는 25-34세가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는 55-64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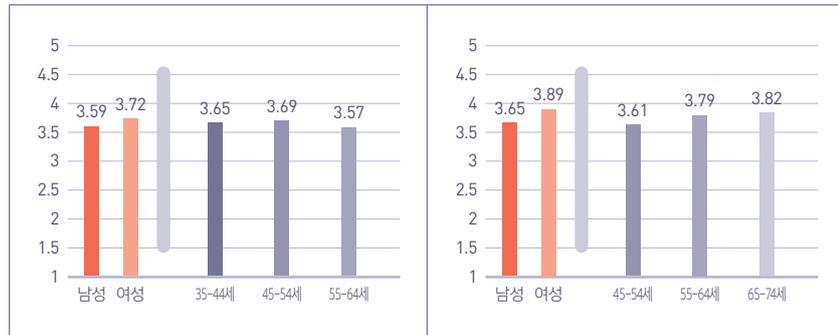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점)

◎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에 더 만족하는 서울시민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만 12세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5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만 12-25세 자녀가 있는 부모의 평균은 3.65점, 만 25세 이상 성인자녀가 있는 부모의 평균은 3.77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만 12-25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아버지 평균 3.59점, 어머니 평균 3.72점이었고,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아버지 평균 3.65점, 어머니 평균 3.89점이었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의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12-25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점)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작은결혼정보센터와 작은결혼식

작은결혼식이란 화려하고 소비적인 예식 대신 결혼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예식, 스스로 준비하여 치르는 예식을 의미한다. 작은결혼정보센터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에게 예식장, 사진 촬영, 신혼여행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 예비 부부가 작은결혼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예비부부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패밀리서울 서울

서울시의 25개 모든 자치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부록 참고). 또한 서울시 광역센터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민의 가족문제 예방 및 가정건강성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가 통합되어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패밀리서울 홈페이지

출처: <https://familyseoul.or.kr/>

<p>가족교육 <small>다보기</small></p>  <p>[중랑구]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전사어린이집 일예 파문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으로서 가족 학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모르는 세에 ...</p> <p>내용보기</p>	<p>가족상담 <small>다보기</small></p>  <p>예비·신혼부부교실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고 차이점을 조율하여 건강한 결혼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p> <p>내용보기</p>	<p>가족상담 <small>다보기</small></p>  <p>[서대문구] 부부집단상담 '부부 행복 충전' 부부 집단상담 '부부 행복 충전' 일자: 2018년 11월14일~11월28일, 매주 수(五)요일...</p> <p>내용보기</p>	<p>가족상담 <small>다보기</small></p>  <p>[영등포구] 특화상담 커플집단상담 '슬기로운 연애생활' 신청을 원하시는분은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p> <p>내용보기</p>
<p>가족문화 <small>다보기</small></p>  <p>[동작구] 2018년 제1회 동작구 부부의 날 교육 및 기념행사 "2018년 제1회 동작구 부부의 날 교육 및 기념행사에 관심 있는 중노년기 부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희를 전후...</p> <p>내용보기</p>	<p>가족문화 <small>다보기</small></p>  <p>작은결혼식 캠페인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담긴 결혼식, 부부됨의 가치가 먼저인 참된 결혼식을 서울시가 응원합니다.</p> <p>내용보기</p>	<p>오늘의 가족정보</p>  <p>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TOP5 일·가정양립은 너무 x1000 어려운 일!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적...</p> <p>내용보기</p>	<p>오늘의 가족정보</p>  <p>이젠 꼭 봐야해! '8통8색, 결혼·출산·육아 웹툰' 추천! 쌍쌍에게는 요즘, 따뜻한 이불 속에서 웹툰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는데요. 오늘은 이젠 꼭 봐야해!! 8통...</p> <p>내용보기</p>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

출처: 2018 서울가족학교 리플렛, 서울시 건강
가정지원센터

▶ 서울가족학교 서울

서울시에서는 공감과 소통이 있는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하여 ‘서울가족학교’라는 이름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가족학교에서는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아동청소년기 부모교실 등을 통해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패밀리셰프, 서울가족축제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을 마련하고 있다.

 <p>예비부부교실 행복한 결혼생활의 시작 의사소통 OK, 다들 같든 NO! 예비부부교실로 행복한 결혼을 준비, 시작하세요!</p>	 <p>신혼부부교실 행복한 부부, 가족의 기초다지기 평등하게 협력하는 부부역할 나누기, 신혼기에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되는 것을 체크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p>
 <p>아동기 부모교실 "도대체 좋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걸까?"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도록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하세요.</p>	 <p>청소년기 부모교실 "오늘 들어 아이와의 대화가 좀 더 들었다.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청소년기 특징을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간 건강한 대화 방법을 배워 자녀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기 부모교실과 함께하세요.</p>
 <p>패밀리셰프 웃음소리 가득한 가족들과의 식사시간, 성장기 자녀의 바른 인성을 길러준다던 부모의 재능이 재능이 함께 만드는 패밀리의 셰프의 함께하세요!</p>	 <p>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좋은 아빠 되기" 어렵지 않아요!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직장으로 찾아가 기관의 구성원 특성과 인원 수에 따라 맞춤형 아버지교육을 실시합니다.</p>

▶ 부모교육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발달 단계에 있는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라는 홈페이지(www.mogef.go.kr/kps/main.do)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부모뿐만 아니라 현장의 부모교육 강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를 위한 자료로는 육아정보, 동영상, 안내서, 초보 아빠 수첩 등이 있으며, 부모교육 강사를 위한 자료로는 강의매뉴얼,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이 있다. 예비 부모, 영유아자녀 부모, 청소년자녀 부모 등 자녀의 발달단계별 특성과 함께 다양한 부모를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 정보를 구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사이트

출처: www.mogef.go.kr/kps/main.do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각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맞벌이가족 아버지/어머니 대상 집단 상담', '이혼 전 부부 집단상담',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구별 상담특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이용
방법

- <http://familyseoul.or.kr/consultation-guide>
- 면접 상담(지역별) - 지역별 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전화 상담 - 대표번호 1577-9337
- 온라인 상담 -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지역 센터로 연결

▶ 법원 연계 이혼위기 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이혼 관련 의사 결정, 이혼 후 협력적인 자녀양육, 부부 의사소통 개선, 이혼 후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연계하여 상담, 교육, 가족캠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슈어스타트 홈페이지
<http://surestartnorfolk.co.uk/>

영국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 Sure Start는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빈곤층 아동이 어려서 부터 확실(Sure)하게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모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24개의 지역 단위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현재 약 3,500여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4세 미만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 아동보호, 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 부모에게는 상담, 부모교육,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2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가족

◎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구

자녀의 국적과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제결혼가족(부모 중 한 명만 외국국적)이나 외국인가족(부모 두 명 모두 외국 국적)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의 출생아 수는 2012년에 22,9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6년은 19,431명으로 총 출생아 중 4.8%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에는 33,139명의 결혼이민자와 30,761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살고 있다(통계청,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또한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중도입국 청소년은 약 2,761명 가량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다문화가구 출생아 수와 전체 출생 중 다문화가구 출생 비중 추이

출처: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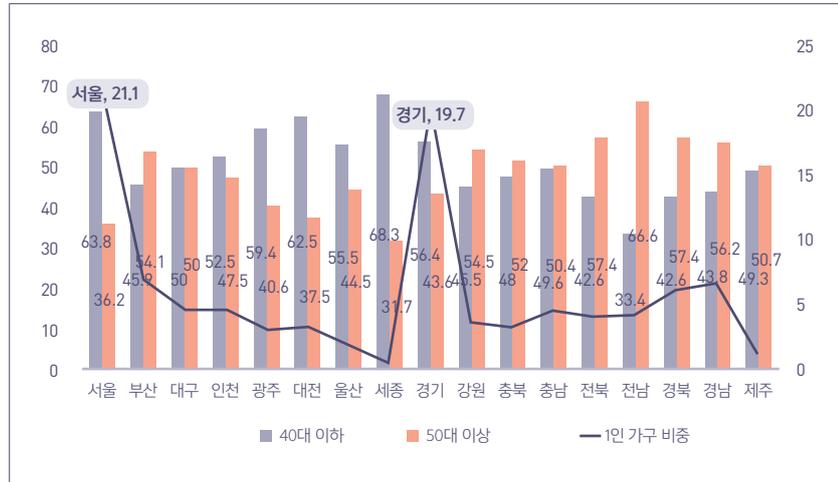


◎ 전국 중 가장 높은 1인가구 비율

서울에는 총 1,180,540명의 1인가구가 살고 있다. 1인가구는 1990년까지는 10% 미만이었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수치는 전국 지자체 중 1인가구의 비율이 21.4%로 가장 높다. 그 뒤를 경기(19.7%), 부산(7.0%), 경남(6.7%)이 따르고 있다(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2017년 1인 가구 시도별 현황

출처: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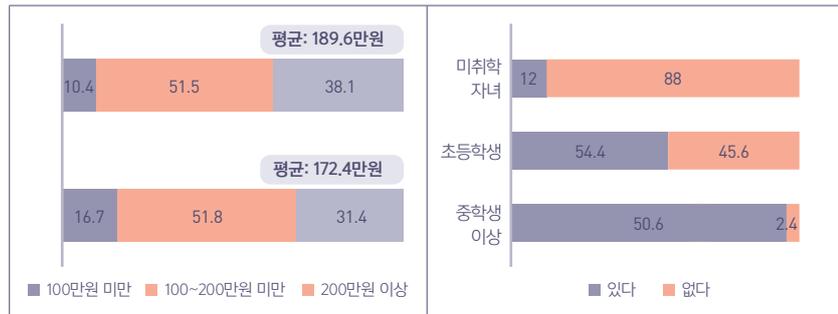


◎ 돌봄공백에 취약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에서 미성년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로 돌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여성가족부,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월 189.6만원 정도로, 2014년 전체 평균 가구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친다. 특히 모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출처: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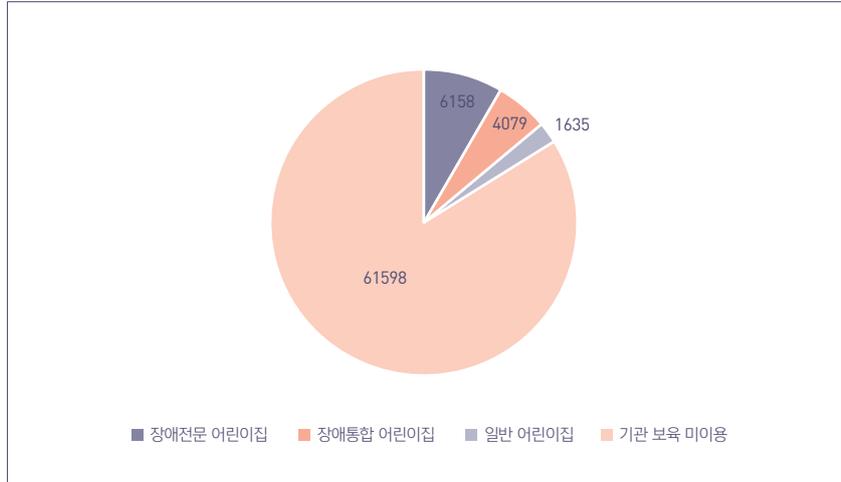
출처: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족

장애를 가진 가족원이 있을 때 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다른 가족원인 경우가 81.9%,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공적 서비스제공자인 경우가 13.9%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17년 연구기관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의 2016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육 대상자인 장애 영유아 7만 3,470명 가운데, 실제로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장애 영유아는 1만 1,872명(장애전문 어린이집 6,158명, 장애통합 어린이집 4,079명, 일반 어린이집 1,635명)으로 전체 장애 영유아의 16.2%만이 보육지원을 받고 있다.

2016년 장애아 보육시설 이용 현황
(단위: 명)

출처: 2016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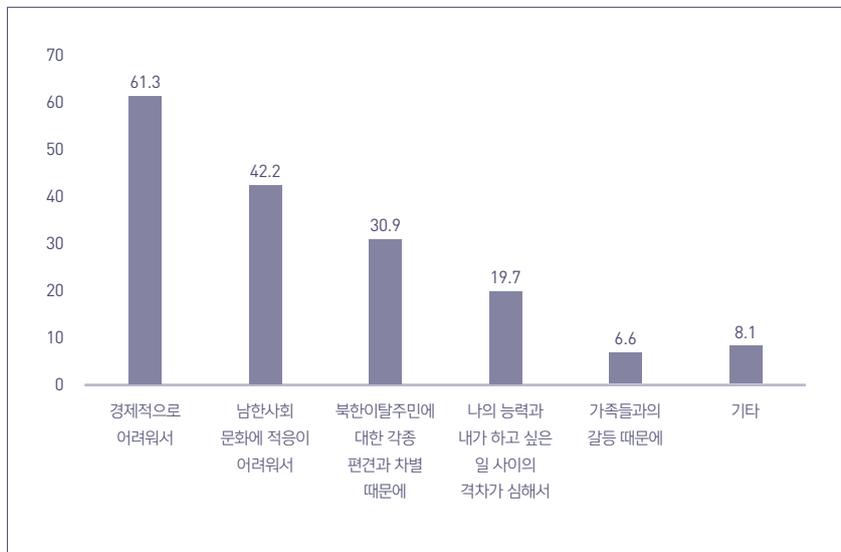


◎ 정착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가족

1990년대만 해도 탈북자 가운데 여성은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여성 비율이 급증하여 2001년에는 46%까지 상승했다. 그 이후 '여초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이다. 2017년 1월에서 3월까지 입국한 탈북자 278명 중 여성비율은 83%에 달하며 전체 탈북자 중 71%이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불만족하는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이며, 다음으로 '남한사회 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편견과 차별 때문에' 등이 이어졌다(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경제적인 자립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 (복수응답)

출처: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1)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자녀 생활을 위한 방문교육을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을 위해 통역·번역, 상담 및 사례 관리, 사회 적응교육 및 취업교육 지원, 가족교육, 이중언어 환경 조성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족 지원포털인 다누리(www.liveinkorea.kr)는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서울

결혼이민자, 외국인 여성근로자, 유학생 등 이주여성을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노동 피해, 가족 불화 등 각종 어려움에 관한 심리상담 및 의료,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한울타리 센터에서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한울타리 사이트

출처: https://www.mcfamily.or.kr/intro_web.php



▶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 서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미취학 및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학습을 제공한다. 또한 중도입국자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한국어교육, 심리정서 상담, 진학 및 취업 교육과정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일자리 지원 사업은 취업, 창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수준별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취업 후 사후관리를 통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정착 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핫라인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 성공 멘토링, 찾아가는 취업교실, 고급한국어교육, 창업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창업 세미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1인가구

▶ 1인 여성가구 안전환경 조성 📍 서울



‘여성안심 행복마을’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관심 확대 및 예방 강화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성안심 지킴이집’은 편의점을 활용한 24시간 여성대피소로, 2017년 기준 총 1,00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76건의 긴급지원이 실행되었다.

‘서울시 안심이’는 서울시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활용, 25개 전 자치구 통합 관제센터와 앱을 연계하여 비상 상황 개입 및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늦은 시간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집 앞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안심이 앱이나 다산콜센터(120)로 전화 신청한 후 동행해줄 스카우트 이름과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하고, 약속 장소와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노란 근무 복장 스카우트를 만나 신원을 확인한 뒤 동행한다.

<2018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서울시 1인 여성가구 관련 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에 대해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고 한 사람은 88.8%, 서울시 안심이에 대해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고 한 사람은 58.5%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각각 3.6점, 3.2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시 1인 여성가구 관련 정책

좌: 인지도 (단위: %)
중: 이용 경험 (단위: %)
우: 만족도 (단위: 점)



▶ 1인가구 전용공간 ④ 서울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가 모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인가구 전용공간 5곳을 새롭게 마련하고 구청 주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는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중장년 1인가구의 소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평구는 '청년새싹 활력공간'을 통해 특별강연, 청년대화 프로그램, 공유 부엌, 공유장터 등 청년1인가구의 활동을 돕는다. 금천구는 시흥4동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은둔형 1인가구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출처: 서울& 2017.4.20.

금천구의 1인가구 맞춤형 건강관리

금천구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혼밥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 대책'을 선보였다. 2030세대 통통 혼밥족, 4060세대 튼튼 혼밥족, 촘촘한 안전망 100세 혼밥족을 구분하여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2030세대에는 간편건강조리법, 온라인 영양상담, 보건소 저녁 운동교실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4060세대에는 흡연 예방교육, 금연 클리닉, 일대일 음식 컨설팅, 자조 모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제공한다. 노년 세대에는 찾아가는 건강지원 서비스와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16)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를 위한 기본조례인 『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으로 만들어지는 가족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1인가구를 사회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인 가구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자살이나 고독사 등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고 새로운 사회 관계망을 지원하는 공동생활 가정, 소셜다이닝 등 '사회적 가족 도시'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독거노인 지원 중심으로 마련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해 청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1인 가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3)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위해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 주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서비스인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전달한다. 또한 '우리동네 자조모임'을 통해 한부모가족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부설 도당학교에서는 미혼모의 학습과 진로를 위해 검정고시 학습지원, 미래설계교육, 진로 및 생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출처: <http://www.seoulhanbumo.or.kr/>



▶ 서울시 미혼모를 위한 꿈틀박스 ☎ 서울 new

서울에 거주하면서 임신 중인 미혼모 혹은 출산 3개월 이내인 미혼모 중 기준 중위 소득 80%인 미혼모 100명에게 꿈틀박스를 지급한다. 꿈틀박스에는 영아를 키우는 데 필요한 유모차, 젖병, 아기 띠, 배냇저고리, 분유, 수면 조끼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이 포함된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혼 후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다른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한 번 신청하는 것만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조손가족을 위한 서비스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 산정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확대된 정책을 제공한다. 가족의 주된 소득자가 사망·가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학령기 아동을 위해서 학습지원과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및 아동발달 영역별 통합 서비스(드림스타트)를 제공한다.

(4) 장애아 가족

▶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서울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기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인식 개선, 자치구 센터 지원, 동료상담 서비스 및 자조모임 지원,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2017년에 광역센터 1개소와 기초센터 5개소(강서, 은평, 마포, 동대문, 광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8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거점복지관 지정·운영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역에 거점복지관을 지정하여 해당 권역의 자치구와 그 자치구 내의 장애인복지관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점복지관은 지역중심 위기·긴급 장애인가족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광역 자원 개발 및 전문서비스를 연계한다.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장애인가족돌봄 휴식제를 총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장애아가족 지원 네트워크 『Parents to Parents』

미국 뉴욕주의 『Parents to Parents』는 발달장애인 가족과 관련 종사자들의 네트워크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민간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와 소식들이 업데이트되며, 부모 간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upport Parent’라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제공, 정서 지원을 대면,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한다. 건강, 특수교육, 주거, 지역사회 기반 정보를 제공하며 3개의 권역에 총 13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출처: Parents to Parents 홈페이지
<http://parenttoparentnys.org/>



(5) 북한이탈주민 가족

▶ 하나센터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3개, 서울에 4개의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하여 4주간의 초기 집중교육과 취업, 상담 등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상담사가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관리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청소년을 위한 교육, 체험, 문화사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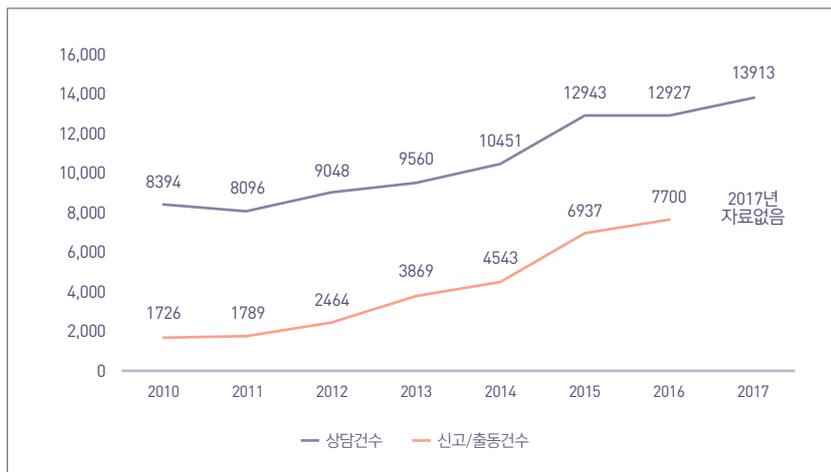
3 가족 위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심각한 부부폭력 위험

부부폭력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학대행위, 방임 및 유기, 성학대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63.2%가 결혼 후 5년 이내에 처음 폭력을 경험했으며, 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 3.3%, 정서적 폭력 10.5%, 경제적 폭력 2.4%, 성적 폭력 2.3%였다. 서울시 1366 여성긴급전화 운영 현황 보고에 따르면 부부폭력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상담 대비 부부폭력 관련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절반 정도에 이른다. 서울은 전국 대비 전체 가정폭력에서 부부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가정폭력 상담 건수 및 신고/출동 건수

출처: 1366 여성긴급전화 운영 현황,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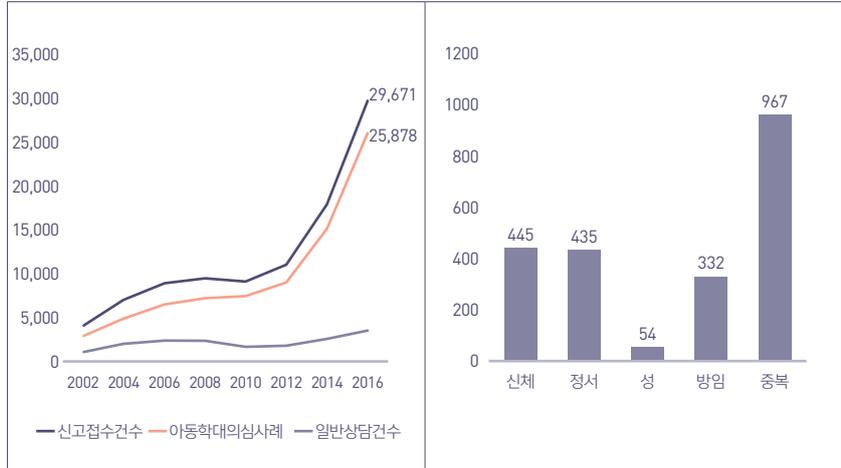


◎ 증가하는 아동 및 노인 학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6년에는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29,671건을 기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7년 신고접수를 기준으로 경기 다음으로 많은 3,836건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사례 판단 결과 2,233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드러났다. 서울시 아동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학대, 방임, 신체학대, 성학대 중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9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접수

출처: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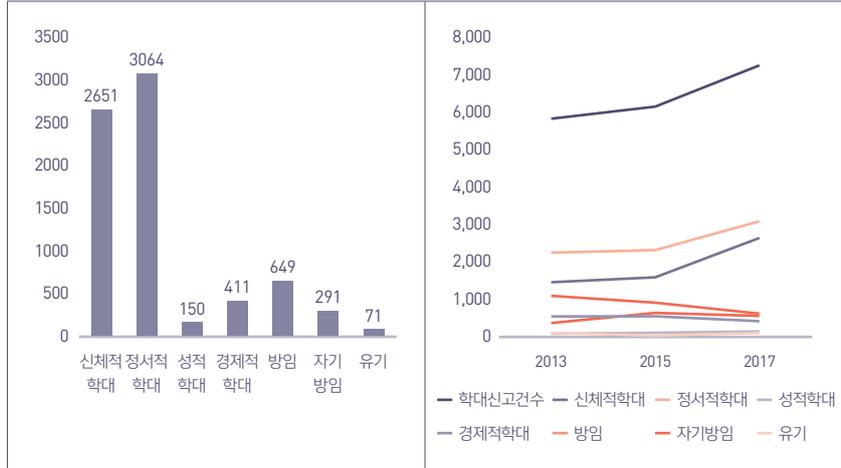
서울시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출처: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역시 신고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총 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기준 약 7,000건에 가깝다. 노인학대의 유형별로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42.0%), 신체적 학대(36.4%), 방임(8.9%), 경제적 학대(5.6%) 등의 순서로 발생했다.

2017년 학대피해노인 학대 유형

출처: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신고접수건수 변화추이 (2013년~2017년)

출처: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는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 사건 등의 충격을 경험한 당사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완화하여 가족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긴급 심리·정서 지원(지지리더 파견),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가족역량증진 지원(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가족치유캠프, 자조모임, 법률, 의료, 복지 서비스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회복을 돕는다.

▶ 취약위기가족 부모역할 강화(가족행복드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취약위기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과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 해체, 가족관계 단절,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가족상담, 자녀양육 관련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가족품앗이) 등을 제공한다. 전문상담사를 파견하여 한 가정당 20회기, 1년에 걸쳐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원스톱 보호망이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보호뿐만 아니라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를 제공하며,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다.

▶ 위기아동 조기발굴 시스템

2018년 상반기부터 정부는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에 장기 결석한 아동,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 등을 확인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플래너를 통해 가정을 방문하고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 피해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하는 쉼터이다. 2017년에 2개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신청하면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험할 수 있는 실천정책을 개발하고 국내외 노인인권 관련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보호사업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서울북부, 서울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총 3개 기관이 서울에 위치해 있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를 당한 어르신에게 식사 제공, 법률서비스, 의료 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서비스, 상담, 심리치료와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쉼터이다.

2018
희망서울 행복가족

V

모든 가족이 적정한 생활을 누리는 서울

1. 가족의 안정된 주거생활
2. 가족의 기본적인 경제생활

“

91년생 은수씨는 재작년에 취업하고
올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행복주택에 입주했어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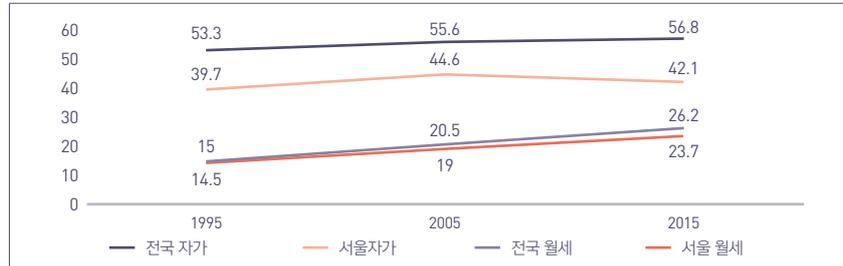


1 가족의 안정된 주거생활

◎ 주거 부담이 높은 서울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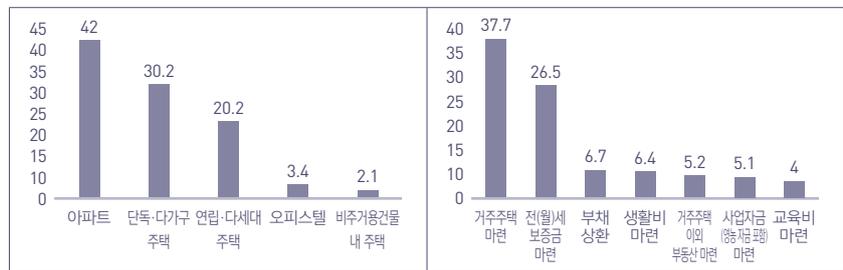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가구의 증가 속도에 비해 주택의 공급 증가 속도가 빨라 절대량에서는 주택 보급율이 100%를 웃돈다(전국 102.3%, 서울 96.0%). 그러나 서울시민의 자가 점유율은 42.1%(2015년 기준)로 전국 평균보다 14%포인트나 낮으며, 월세 비율은 1995년부터 2015년 사이 15.0%에서 26.2%로 증가하였다.

전국과 서울의 자가 및 월세 비율:
1995, 2005, 2015년
출처: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2017년 서울시민의 42%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단독·다가구주택에는 30.2%, 연립·다세대주택은 20.2%의 시민이 거주하며, 서울시민의 주된 부채 이유는 거주주택 마련(37.7%)과 전(월)세 보증금 마련(26.5%)에 있다(서울특별시, 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5억 8천만원, 평균 전세 가격은 3억 9천만원이다.

2017년 서울시민의 주택 유형
출처: 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의 주된 부채 이유
(N = 16,169가구, 단위: %)
출처: 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서울특별시

◎ 주거 문제가 심각한 1인 가구

1인 가구는 또 다른 주거 문제를 겪고 있다. 서울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는데, 1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월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주택의 총공급 확대라는 접근보다는 주거빈곤 가구 감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맞춤형 주거정책

① 행복주택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이다. 계층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② 매입·전세 임대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SH공사에서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당첨자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③ 공공지원주택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공급물량 중 20% 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이다.

④ 대학생기숙사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행복공공기숙사는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상명대학교에 2017년 공급되었으며, 캠퍼스 밖에 위치한 행복연합기숙사는 홍제동에 2014년 신설되어 약 512명을 수용할 수 있다.

⑤ 영구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⑥ 국민임대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⑦ 분양전환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정책으로, 임대 기간까지 거주 후 분양전환할 수 있다.

대상별로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정책

⑧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서울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청년주택사업이다.

<p>청년층 대상</p> 	<p>☞ 일반 만 19~39세 청년이라면 ① 행복주택 ③ 공공지원주택</p> <p>☞ 취업준비생(졸업 2년내)라면 ① 행복주택 ② 매입·전세 임대</p> <p>☞ 사회초년생(소득업무종사5년이내)라면 ① 행복주택 ⑧ 역세권 2030 청년주택</p>
<p>신혼부부 대상</p> 	<p>☞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② 매입·전세 임대 ⑤ 영구임대(수급자) ⑥ 국민임대 ⑧ 역세권 2030청년주택</p> <p>☞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① 행복주택 ⑦ 분양전환 ⑧ 역세권 2030 청년주택</p> <p>☞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③ 공공지원주택 ⑦ 분양전환(맞벌이) ⑧ 역세권 2030청년주택</p> <p>☞ 다자녀(3자녀 이상)라면 ② 매입임대 ⑥ 국민임대 ⑦ 분양전환</p>

고령가구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② 매입·전세 임대 ⑤ 영구임대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② 매입·전세 임대 ⑤ 영구임대 ⑥ 국민임대(50m2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⑥ 국민임대(50~60m2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① 행복주택 ② 매입·전세 임대 ⑥ 국민임대(60m2 초과)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③ 공공지원주택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② 매입·전세 임대 ⑤ 영구임대

☞ 주거급여 수급자

① 행복주택

☞ 장애인

② 매입·전세 임대 ⑤ 영구임대 ⑥ 국민임대

☞ 비주택 거주자

⑥ 국민임대 ② 매입·전세 임대

☞ 한부모가족

② 매입·전세 임대 ⑤ 영구임대 ⑥ 국민임대



▶ 청년주거포털 **서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housing.seoul.kr)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거매물의 현재 상태와 임대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주거포털
출처: http://housing.seoul.kr/



▶ 한지붕 세대공감 **서울**

서울시가 시행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으로, 주거 공간의 여유가 있는 노인과 주거 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한다. 노인은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소정의 임대료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청약 통장이다. 만 19세 ~ 만 29세(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이며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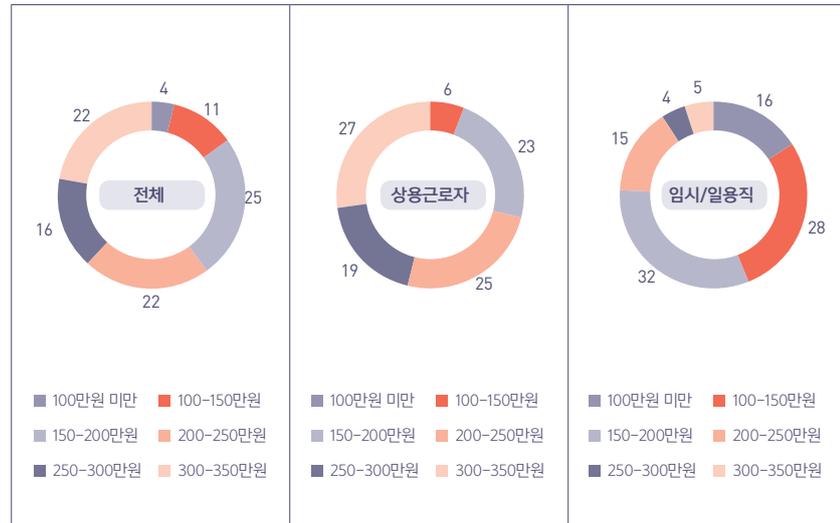
2 가족의 기본적인 경제생활

◎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서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장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절대적 증가와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을 발견하고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겪는 가족을 최소화하고자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 청년의 평균임금 분포 중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전체 중 40%, 상용근로자 중 29%, 임시/일용직 중에서는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2015년 청년 평균임금 및 임금별 분포 (단위: %)

출처: 2015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곤 노인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55.2%로 전년보다 4.1%p 상승하였고,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65.7%로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상승하였다.

2016년 인구 유형별 상대적 빈곤율
(단위: %)

출처: 2017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서울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에는 서울시 의무거주 기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지원 기간, 중증장애인 별도 지원, 한부모 가구 보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틈새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 청년수당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간 지급한다.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과 같은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통신비와 같은 간접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자치구별 지원하는 수당이다.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청년수당 클린카드(청년보장카드)는 2017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총 27만 5,000건이 사용되었다.

▶ 노인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월 2만원~25만원을 차등지원하며, 수급자 수와 수급률 모두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건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된다.

▶ **이름통장** **☎ 서울 new**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가 있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매월 10만~2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형태로 지원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34세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18
희망서울 행복가족

부록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1)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센터 중 23개소가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주소	전화 및 홈페이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5층	1577-9337 www.liveinkorea.kr
서울특별시 (서울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기관)	중구 소파로 4길 6	02-318-0227 familyseoul.or.kr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 617-8 4층	02-3412-2222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2층	02-471-0812
강북구	강북구 연수봉로 66길 9 수유동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02-987-2567
강서구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17
관악구	관악구 신림로3길 35, 3층 관악구 낙성대로 4가길 5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02-883-9383
광진구	광진구 능동로 30길 23 광진구새마을회관 2층 (건가) 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 5층 (다가)	02-458-0622 (건가) 02-458-0666 (다가)
구로구	구로구 디지털로 32가길 50 3층	02-869-0317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1층	02-803-7747
노원구	노원구 통일로 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979-3501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7층	02-957-0760
동작구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2, 3층	02-599-3301
마포구	마포구 신천로 26길 10(노고산동) 2층 마포구 영화로 19(합정동) 홀트아동복지회 3층	02-3142-5482 (건가) 02-3142-5027 (다가)
서대문구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서대문구 통일로 27길 19 홍제1동 자치회관 2층 서대문구 증가로 30길 45-9, 2층	02-322-7595
서초구	서초구 강남대로 서초문화예술회관 2층 서초구 사평대로 205 파미에스테이션 2층	02-576-2851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 6길 9(홍익동) 3층	02-3395-9447 (건가) 02-3395-9445 (다가)
성북구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02-3290-1660
송파구	송파구 양산로 5(거여동) 송파보건지소 2층 송파구 마천로 41길 12(마천2동 127-1)	02-443-3844 (건가) 02-403-3844 (다가)
양천구	양천구 중앙로 46길 57 은행정어린이집 4층 (건가) 양천구 남부순환로 88길 5-7 지중 (다가)	02-2065-3400 (건가) 02-2699-6900 (다가)
영등포구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 4층	02-2678-2193 www.mcfamily.or.kr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로 224-19(한남동) 한남동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3층	02-797-9184 (건가) 02-792-9174 (다가)
은평구	은평구 서오릉로 174(갈현동 469-1) 3층	02-376-3761
종로구	종로구 창신길 124(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02-764-3524
중구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02-2279-3891 (건가) 02-2254-3670 (다가)
종랑구	종랑구 용마산로 369(면목동 62-2)	02-435-4142

2)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 설립되었다. 자치구 별로 이원화된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를 통합 및 확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였다. 시간제 보육, 온/오프라인 양육상담, 부모교육, 장난감 대여, 연령별 발달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통해 지역 내 육아자원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부모에게 연결하며, 보육반상회를 통해 육아 문제에 대해 논의 하는 소통의 장 또한 마련한다.

지역	주소	전화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 4층	02-772-9814~7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 72길 7 3층	02-546-1735~7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6길 16	02-486-3516
강북구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수유동 410-293)	02-944-7480~1
강서구	강서구 수명로 2길 50 (내발산동)	02-2064-2730~2
관악구	관악구 쑥고개로 128번지 2층	02-851-2834
광진구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 (군자동)	02-467-1827~9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3층	02-859-5678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02-894-2264~5
노원구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 (상계동)	02-930-1944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방학동 306-10)	02-3494-3341~2
동대문구	동대문구 황물로 62 (답십리동)	02-2237-5800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3층 (대방동 385-2)	02-823-4567
마포구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 (상암동 1686)	02-308-0202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	02-3217-9550
서초구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347길 46	02-598-9340
성동구	성동구 남계로 160	02-499-5675
성북구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하월곡동 222-6)	02-918-8080~2
송파구	송파구 중대로 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02-430-7192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 (신정동)	02-2646-7790~1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	02-833-6022
용산구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이태원동)	02-749-9673~4
은평로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 (구산동)	02-351-3629, 3630
종로구	종로구 성균관로 1길 6-3 3층	02-737-0890
중구	중구 다산로 32길 5 (신당동) 3층 사무실	02-2263-2626
종랑구	종랑구 망우로 67길 10 (망우동) 망우본동복합청사 6층	02-495-0030~1

3)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2009년에 서울시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 정책개발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서울시강서수도사업소민원센터 2-3층)
전화번호	02-861-3020
홈페이지	seoulhanbumo.or.kr

4)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www.workingmom.or.kr]

서울지역 직장맘을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 및 직장·사회 환경 조성으로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1)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의 모성보호 및 일·가족 양립지원 2) 직장·가정 내 고충, 개인심리·정서, 역량강화교육 등 직장맘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3) 일·가족 양립제도의 사회적 인식확대 및 문화조성 4) 직장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5) 전국 최초의 직장맘지원센터로서 브랜드 사업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자양동) 1층
대표번호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이메일	workingmom@hanmail.net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120번 다산콜 + 내선번호5번

국내최초 전문가 전용콜 서비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소속 공인노무사들의 무료상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권 및 노동권 전반

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 지원센터

[www.seoulworkfamilybalance.or.kr]

일·가족양립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한 일·가족양립을 위한 연구, 인식개선 및 문화조성 캠페인 그리고 기업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가족양립 지원센터 진단 및 컨설팅

이용
방법

- 일·가족양립 일·생활균형 진단
(기업용-회사 진단해 보기 / 시민용-나 진단해 보기)
- 컨설팅(인식개선, 조직개선, 네트워크, 사후관리)
(웹에서 신청하기 / 이메일로 신청하기)

http://www.seoulworkfamilybalance.or.kr/usr/poll/poll_main_consulting.do?mnuCd=MNU_075&step=3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5층 가족팀
전화	02-810-5044
이메일	swfcenter@seoulwomen.or.kr

6) 서울우먼업

[www.seoulwomanup.or.kr]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서울시내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기관(통칭)은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로의 진출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도화동, POST TOWER) 7층
전화	02-590-1900
홈페이지	http://swrd.seoulwomanup.or.kr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02-802-0922	http://nambu.seoulwomanup.or.kr
동부여성발전센터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02-460-2300	http://dongbu.seoulwomanup.or.kr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02-972-5506	http://bukbu.seoulwomanup.or.kr
서부여성발전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371	02-2607-8791	http://seobu.seoulwomanup.or.kr
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구 토정로35길 17	02-719-6307	http://jungbu.seoulwomanup.or.kr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구 양재대로1390 신성빌딩 4층	02-475-0110	gd.seoulwomanup.or.kr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강북구 덕릉로108 현웅빌딩 3층	02-980-2377	www.womanjob.or.kr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까치산로134 화곡빌딩 5층	02-2692-4549	www.hrbks.or.kr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구 쑥고개로75 광장빌딩 1층~5층	02-886-9523	www.kwoman.or.kr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구 공원로63 희훈타워빌 2층	02-867-4456	www.kurowoman.com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구 공릉로 187 건설빌딩 5층	02-951-0187	www.job365.or.kr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빌딩 6층	02-921-2020	www.job2060.or.kr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동작구 사당로299 이수텐빌딩 2~5층	02-525-1121	dongjak.seoulwomanup.or.kr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혜우빌딩 4층	02-332-8661	www.workers.or.kr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초구 강남대로 216 양재플라자 3층	02-6929-0011	seocho.seoulwomanup.or.kr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동구 무학로2길 54 신방빌딩 1층	02-3395-1500	sd.seoulwomanup.or.kr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구 중대로9길 34 대호빌딩 2층	02-430-6070	songpa.seoulwomanup.or.kr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구 영중로 61	02-858-4514	www.ywcajob.or.kr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용산구 청파로 139-21	02-714-9762	yongsan.seoulwomanup.or.kr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은평구 통일로 750 경일빌딩 2층	02-389-1976	www.epwoman.or.kr
강남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공항대로41길 34 투에프코트빌딩 7층	02-6929-0002	kangnam.seoulwomanup.or.kr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구 대학로11길 23 스타시티빌딩 2~4층	02-765-1326	www.sbwomen.or.kr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구 망우로32길 20 대림빌딩	02-3409-1947	jungnang.seoulwomanup.or.kr

7) 서울시50플러스재단

[<https://50plus.or.kr>]

서울시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정책 및 사업, 상담, 교육, 사회공헌형 일자리, 건강, 재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본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02-460-5050	50plus.or.kr/org/index.do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84 서울혁신파크 8동	02-460-5150	50plus.or.kr/swc/index.do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2층	02-460-5250	50plus.or.kr/scc/index.do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36-25	02-460-5350	50plus.or.kr/ssc/index.do
노원50플러스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30길 73	02-930-5060	50plus.or.kr/nwc/index.do
도심권50플러스센터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	02-3672-5060	50plus.or.kr/dsc/index.do
동작50플러스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02-3482-5060	50plus.or.kr/djc/index.do
영등포50플러스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2 여의도복지관 3층	02-2635-5060	50plus.or.kr/ydp/index.do
서대문50플러스 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유진상가 2층	02-394-5060	50plus.or.kr/sdm/index.do

8)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 공동체 실현을 위해 주민주도와 민관협치로 마을공동체회복과 주민자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1동) 3층 317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전화	02-385-2642
팩스	02-354-9280

9)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지원과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이다. 위기장애인가족 사례관리와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며, 동료상담 서비스와 자조모임을 지원한다.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28길17 한얼빌딩3층304호	02-6949-3133~4	seoul.dfsc.or.kr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강서구발산로40, 강서도매시장내4층 관리동7호	02-6956-1991~2	gs.dfsc.or.kr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광진구자양로46, 301호(자양동)	02-456-0708	gj.dfsc.or.kr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동대문구천호대로307, 802호 (답십리동, 클래식타워)	02-2249-1717	ddm.dfsc.or.kr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마포구월드컵로36길18, 202호 (성산동, 삼라마이더스오피스텔)	02-303-3618	mp.dfsc.or.kr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서대문구세검정로78-19, 1층	-	-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성동구성수이로118, 라성아카데미타워1122호	02-6929-2456	-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은평구은평로147 미주빌딩403호	02-357-3345~6	ep.dfsc.or.kr

2018
서울가족보고서



희망 **서울** 행복가족

발행일	2018년 12월
판명·판수	초판 1쇄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편집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획총괄팀
집필진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노신애, 김아영, 박제인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발행처	서울특별시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318-8167
디자인·인쇄	디자인 세륵 (02-2273-5167)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출판일련번호	여성 912-0003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BN 979-11-6161-558-5 (03330)

희망  서울  행복가족

2018 서울가족보고서

